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24일)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가 1월 21일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운집한 5000여 스님들은 종교편향 종식과 불교왜곡 근절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고불문 낭독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5천여 스님들 외침…"종교차별 넘어 진정한 통합으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 전국승려대회 봉행

글=송지희 · 임은호 기자 / 사진=박재완 · 노덕현 기자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큰 물결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사현정의 깃발 높이 들고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5000여 스님의 결기가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를 메웠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를 뒤흔든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경책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불교 외호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스님들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불교왜곡과 종교편향이 없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발원했다.

1월 21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는 차별을 넘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석이었다. 특히 수십년간 반복돼 온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불교계 규탄여론이 결집한 만큼, 매서운 경책의 메시지가 함께했다.

승려대회에는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본사의 본말사와 전국선원수좌회 및 전국비구니회 소속 스님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다. 현장에 오지 못한 전국 사찰의 스님들도 마음으로 함께했다. 오후 2시 승려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종과 명고가 조계사에 울리던 시각, 전국 사찰에서도 명종 6타로 뭇생명에게 승려대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명종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지 못한 불제자들을 향한 경책, 그리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부처님 정법에 따라 세간을 교화하고,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원력으로 종교편향을 근절해 불교자주권 수호를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삼귀의, 반야심경으로 막을 올린 본행사는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스님들은 고불문에서 전국승려대회의 취지와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의 의지를 부처님전에 고했다.

고불문을 대표낭독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일제강점기 이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불교와 전통문화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자 노골적인 종교 편향과 차별 정책을 펼쳤고, 오늘날까지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단의 지속적 안녕이 위협받고, 도량의 청정과 납자의 가풍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벽안납자들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파사현정(破邪顯正) 원력으로 분연히 일어나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라는 승가 갈마를 열게 됐다"며 "불보살의 증명으로 저희들이 오늘 내딛는 이 걸음이 교단의 자존과 자주를 성취하고 종교간에 상호 존중과 화합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봉행사를 낭독하고 있다.

1월 21일 조계사에서 대결집
"파사현정 기치로 불교외호"
종정예하 교시서 화합 당부
정부 여당 경책여론 드높아
자성 · 성찰 참회진언 낭독도

스님들은 참회진언을 통해 그동안 숱한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으로 인한 상처를 되짚고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수호하지 못한 불찰을 참회하고 성찰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중생제불불상침(衆生諸佛不相侵)이며, 산자고혜수자심(山自高兮水自深)이로다. 만별천차명저사(萬別千差明低事)이니 자고제처백화신(鷓鴣蹄處百花新)이로다"라는 교시를 내렸다. 교시는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산은 스스로 높고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만가지 천가지로 다름이 모두 이 진리를 밝힘이니 자고새 우는 곳에 백가지 꽃이 새롭도다"는 의미다.

이어 종정예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계에 두루하게끔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며 "중생이 화합하니 법화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진동한다"는 가르침을 설했다.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행사에서 "역사 속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속에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이천년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홀대받고 있다"며 "불교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종교간 분쟁이 없는 모범국가의 토대를 제공해 왔지만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승가공동체의 결집은 차별적인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이자 종교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준엄한 죽비경책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제도를 정비하여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합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승려대회에는 한국불교를 이끄는 각계 대표스님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도 대회연설을 통해 "파사현정의 기치를 드높이자"고 천명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을 통해 승려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이 결의문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전국승려대회의 취지와 숭가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참석해 전국승려대회에 뜻을 함께하는 재가불자들을 대표해 연대사를 발표했다.

특히 선광 스님은 대표낭독한 결의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편향 불교왜곡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정부와 여당은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와 여당은 전통문화 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스님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통해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변화된 한국을 만들어가길 서원했다. 한편, 이날 봉행위가 고심 끝에 정부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황희 문체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회발언을 수용했으나, 현장 스님들의 반발로 중단되기도 했다.

〈관련특집 2 · 3 · 4 · 5면〉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大韓佛教曹溪宗 宗正教示

衆生諸佛不相侵(중생제불불상침)이며,
山自高兮水自深(산자고혜수자심)이로다.
萬別千差明低事(만별천차명저사)이니
鷓鴣蹄處百花新(자고제처백화신)이로다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산은 스스로 높고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만가지 천가지로 다름이 모두 이 진리를 밝힘 이니
자고새 우는 곳에 백 가지 꽃이 새롭도다.

모든 불자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계에 두루 하게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생이 화합하니 법화(法華)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진동하네.

佛紀 2566年 1月 21日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真際 法遠

결연한 메시지 '감동'…온라인 중계 '성황'

전국승려대회 이모저모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부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전국승려대회가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이 불교계를 움직였다고 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종교편향은 반복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월 21일 오후, 조계사 앞마당에 모인 5000여 명의 스님들은 한마음 한 뜻이었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에서 모인 스님들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뿌리 뽑겠다는 간절한 원력이 가득 찼던 전국승려대회 현장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절절함이 담긴 발원문은 5000여 대중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종무원과 포교사단은 질서 유지 등 여법한 회향을 위해 노력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모든 스님들은 경내 입장 전 체온을 측정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 방방곡곡서 올라온 버스 120여 대

이날 전국승려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스님들이 이른 새벽부터 길에 나섰다. 동화사와 은해사, 불국사 등에서 20대, 해인사와 통도사, 금산사 등에서 14대, 신흥사와 월정사, 법주사 등에서 20대의 차량이 움직였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의 혼잡을 피하고자 120여 대의 버스는 경복궁과 창경궁, 탑골공원 등 종로 곳곳으로 나뉘어 주정차했다. 스님들은 도보로 조계사에 향했다.

◆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타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기원하는 타종의식을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승려대회가 시작됐다. 1월 21일 오후 2시, 전국 사찰에서는 6번의 범종이 타종 돼 반야의 법음을 울렸다. 타종을 통해 뭇생명에게 승려대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 종교편향 영상물에 탄식

승려대회 중반, 경내 중간중간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는 종교편향과 불교폄훼 관련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을 선제적으로 지키며 모범을 보여왔음에도 지속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화면에 나오자 스님들은 고개를 흔들며 "저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탄식했다.

◆ 발원문 낭독 엄숙한 모습 '눈길'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큰 물결이 돼 다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문화 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사현정의 깃발 높이 들고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나지막하지만 절절함이 담긴 발원이 조계사 앞마당을 휘감았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발원문 낭독 시간, 전국승려대회 참가 대중들이 모두 합장을 하는 풍경이 연출되는 진중한 장면이 포착됐다. 대중들은 간절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았다. 경내에서는 낭랑한 발원문이 울려 퍼졌고, 5000여 대중들의 마음 마음을 이어 하나로 만들었다. 발원문에 앞서 진행된 석가모니불 정근에서는 평화적이고도 장엄한 모습이 연출됐다.

◆ 황희 장관 · 송영길 대표에 격앙

승려대회 말미, 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정부와 민주당의 요청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참석한 스님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이어 황 장관이 유감을 표하는 영상이 상영되자 좌중에서 "항상 말 뿐인 이들에게 사과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반대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영상은 스님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송영길 대표는 영상 상영 후 단상에 올라 종단이 지적한 종교편향 사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이었으나 좌중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뜨면서 무산됐다. 스님뿐 아니라 조계사 주변에 있던 불자들 역시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대회 질서 유지 · 불자 권익 지킨 호법단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과 포교사단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호법단은 대회질서 유지, 대열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외부단체와 충돌방지 등 원만한 회향을 위해 노력했다. 봉은사신도회와 도선사신도회에서 각각 40명이 동참, 조계사 일대를 둘러싸며 외호에 힘을 보탰다. 호법단의 노고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국승려대회는 여법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 철저한 방역수칙…의료부스 설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모든 스님들은 경내 입장 전 스텝의 안내에 따라 체온을 측정했고 이후 삼보륜이 찍힌 스티커를 장삼에 붙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스님들은 또 안심콜 통화로 출입등록과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경내에 입장할 수 있었다. 대회장 좌석 설치도 1m 거리두기를 적용해 배치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계사 경내에 의료부스를 설치하고 3명의 의료진을 파견했다. 일주문 앞에는 구급차와 이동검진차량을 준비했으나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 '예수는 행복의 시작' 광신도 눈살

승려대회가 봉행되는 동안 특정 종교인으로 보이는 광신도가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조계사 인근 우정국로에서는 '예수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 이라는 문구가 적힌 차량이 스피커를 켠 채 거리를 왕복했고, 예수천국'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선교하는 특정 종교인이 시비를 걸 듯 불자들 사이를 활보 했다. 그러나 호법요원들의 통제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유튜브로 동참한 '승려대회'

BTN과 BBS불교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승려대회를 실시간 중계했다. BTN 특별생방송 조회수는 4만여회, BBS불교방송의 경우 3만여회에 달했다. 실시간 댓글도 쉼 없이 달렸다. 한 유튜버는 댓글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국민들 귀를 막고 있으면 스님들이 일어났겠느냐"며 "현장 참여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댓글은 생중계가 끝난 이후까지 이어졌다.

SBS 등 공중파도들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려대회를 중계했다. SBS 뉴스의 경우 승려대회 현장중계 조회수가 9만회에 달했다.

"불교 폄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국승려대회 주요인사 발언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가 1월 21일 오후 2시 시작, 오후 3시 30분 여법하게 회향됐다. 전국 각지에서 스님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고 장엄하게 진행된 승려대회에서는 오랜 기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준엄하고도 강경한 경책이 이어졌다.

이날 전국승려대회에서 스님들은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를 규제로 옭매고 홀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대회연설에서 "한국불교는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고 정신문명을 이끌어 왔지만 국가는 기본적인 수행과 신행,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규제를 겹겹이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수많은 사찰과 사찰림이 국공립공원으로 강제 편입됐고 이로 인한 각종 교제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재관람료로 인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해 국민적 비난이 사찰과 스님들에게 향할 때마다 책임을 외면한 채 방관해 왔다"며 "국공립공원을 무료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거짓 홍보를 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과 스님들을 국민적 비난거리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도 "불교재산관리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된 한국불교는 산중에나 있는 종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남한산성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 캠페인과 같은 공공기관의 특정 종교 홍보활동 등을 열거한 스님은 "기독교인의 훼불과 사찰 방화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도 그릇된 신앙으로 무장한 공직자들이 종교갈등, 종교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해미읍성, 천진암, 주어사 등 오랜 불교 역사를 가진 곳을 특정 종교 성지화에 지원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 역할을 배제해 온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날 스님들은 한국불교를 지켜내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도, 권력에 기대지도 않겠다는 결의를 표했다.

도각 스님은 "오늘의 참담한 현실의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며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 서원한 사부대중 모두는 바로 오늘 정치권력, 공권력에 대한 결연한 독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불교는 더 이상 국가권력과 위정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기대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부정수교, 파사현정하는 정법 순교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덕문 스님도 "정부여당을 준엄히 꾸짖어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정신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의 자주권과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존재했던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 존엄을 다시 세우고 승가와 교단을 스스로 지키는 정법 당간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전통문화 홀대한 정부 비판
"국민 비난거리 됐다" 개탄
한국불교 자주권 바로 세워
"권력 기대지 않겠다" 결의

를 높였다. 위법망구 각오로 파사현정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말한 덕문 스님은 "한국불교의 자존과 위의를 세우기 위해 물러섬 없이 부종수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문 스님은 "엄동설한에 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과 불교폄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이 땅에서 부당한 종교차별과 불교 폄훼를 뿌리 뽑겠다는 불퇴전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연대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새로운 역할이자 본분이며 한국불교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2000만 불자가 스님들을 끝까지 외호하며 종도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불교왜곡과 폄훼는 물론 종교 편향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모든 난관은 파사현정 정신으로 헤쳐 나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봉 행 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만 불자 여러분!

역사 속에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속에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이천년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조선조말 목숨을 내놓고 천주교인들을 보듬어 준
통합과 자비 그리고 포용의 불교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종교간 분쟁이 없는 모범국가의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진암과 주어사는 천주교 성지가 되었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국립공원의 울타리는 수행공간을 옥죄고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규제받아왔습니다. 온전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정받은 문화재구역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님들은 불조의 혜명을 바로 이어가기 위한 정법의 횃불을 드높이 치켜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 제방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스님들의 염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여러분!
오늘 우리 승가공동체의 결집은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며, 전통문화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입니다. 또한, 종교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준엄한 죽비경책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다름과 차별, 갈등과 분열이라는 검은 장막을 걷어내어,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편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합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오늘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하여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수희동참 해주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승가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 위신력이 결집 대중에게 함께 해주시고
대비원력이 성취되도록 찬란한 빛으로 현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경배드리옵니다.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불교 외호 넘어 사회통합 발원 법석으로

전국승려대회, 의미와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 5000여 스님들이 결집한 전국승려대회가 여법하게 회향했다. 수십년간 지속된 종교편향 · 불교왜곡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스님들의 결의가 대회장 곳곳에 넘실댔다. 한국불교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수행자들의 책임을 직시하는 자성과 성찰의 모습도 포착됐다. 전국승려대회 봉행을 기점으로 그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의 모습.

1월 21일 봉행한 전국승려대회는 불교계를 넘어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법석이었다. 우선 불교계 내부적으로 승려대회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국 각지에서 5000여 스님들이 결집해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승려대회가 봉행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며,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이 모두 동참한 것은 사실상 최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산문을 폐쇄하고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까지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불교계가 대규모 결집에 나선 것은 그야말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문 스님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전국승려대회를 "조계종 종헌종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의사결의의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전국승려대회는 종단이 누란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고의 결의이기도 하다"며 "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과 불교폄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승려대회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종교편향 · 불교왜곡에 대해, 그동안 인내와 희생으로 수용했던 불교계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워 변화를 촉구하는 전환점이었다. 나아가 한국불교 자주권을 수호해 1700년 이어진 한국불교의 면면을 보존 · 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유의미한 법석인 셈이다.

때문에 스님들의 이번 결집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을 넘어, 진정한 사회통합과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불교계가 감내해 온 오랜 피해의식, 그리고 이로 인한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5000여 스님들이 전국승려대회를 위해 제도적 · 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다.

승려대회를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찬반 여론도 관심을 끌었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불교계 내부의 승려대회 반대 여론의 상당수가 '승려대회'라는 방식에 대한 우려였지, 취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신대승네트워크는 "스님들이 대규모로 결집하는 승려대회는 자칫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행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는 공감했다. 특히 "종교 편향과 차별 정책을 바로잡을 입법적 장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교육을 강화해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다종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승려대회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만 85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문자 설문을 진행한 결과, 601명(64.4%)이 반대, 301명(32.%)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만 85명 중 설문에 참석한 스님이 불과 10%에 못미치는 942명이라는 점에서 설문 자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전국승려대회를 향한 여러 시각들이 있겠지만, 불교계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확고하다. 더 이상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은 없어야 한다는 선언, 그리고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위법망구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것이다. 특히 종교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없는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서원은 이번 승려대회가 단순히 불교계 내부의 이익이 아니라 더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집임을 드러낸다.

다만 소수에 불과하지만 불편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불교계가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모인 결의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표명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한 교계 활동가는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는 것보다 이후 불교계 행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갈 지가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불교계 입장과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것으로 끝내선 안된다. 이번 승려대회가 궁극적으로 '규탄'이 아닌 진정한 다종교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 여당 규탄 결의로 가득해
참담한 현실 향한 자성 · 성찰도
승려대회 이후의 행보가 더중요
발전적인 변화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변화 · 제도 개선 필요
정부도 불교계 경책 들여다봐야

이미 정부와 여당의 사과와 개선약속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승려대회 봉행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부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황 장관은 "전국승려대회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걱정이 많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불교계 오해를 풀고 정부가 바꿀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불교계 입장을 잘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의원도 승려대회 직후 잇따라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사과를 불교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황희 장관의 경우 원행 스님 예방에 이어 별도의 사과발언을 영상을 통해 전국승려대회에서 송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스님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중단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과발언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이 같은 분위기를 확인하고 긴급기자회견으로 대체했으며, 정청래 의원의 경우 아예 조계사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국회에서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불교계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정부여당의 사과나 개선약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전국승려대회 자체가 여론의 결집이기 때문에, 이같은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불교도대회가 예정된 2월 26~27일 이전에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정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를 우대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포용력을 갖고 평등과 공심으로서 모든 종교를 대해야 하지만, 과거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늘 그 반대 모습을 보여왔다"며 "범불교도대회까지 가지 않으려면 이번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먼저 경각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 민주당 사과, 스님들 항의로 중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승려대회 말미에 사과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현장 스님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다.

이날 전국승려대회 말미, 예정에 없던 식순으로 정부여당의 발언이 진행됐다. 덕문 스님은 봉행위를 대표해 "승려대회에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승려대회 봉행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했고 이에 대한 참회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정청래 의원이 직접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이는 거절했다"며 "다만 봉행위원회 주요 스님들이 고심한 끝에 정부여당의 간곡한 청을 수용해 대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니 다소 견해가 다르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섭수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원행 스님 등 봉행위원회 스님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대한 현장 스님들의 여론을 수용해 영상상영 중단을 지시했다. 승려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발언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대기 중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결국 단상에 오르지 못했다.

송영길 대표는 조계사 후문에서 기자들에게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1,700여 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교계와 국민 여러분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모든 구성원과 함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한국불교가 수호하고 있는 전통문화와 유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승을 위해 불교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덕문 스님, "봉행위 고심 끝 발언기회" 양해에도
현장서 거센 항의…장관 영상 상영 도중에 중단
당대표 발언도 취소…정청래 의원은 국회서 사과

황희 장관은 영상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종무행정을 관장하는 부처 책임자로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편향 사례들을 미리 살피지 못한데 참회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평무사한 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종교사회로서의 모범적인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브라운관에 황희 장관의 인사말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되자 곳곳에서 스님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당장 꺼라" "뭐하는 짓이냐"는 격양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급기야 봉암사 등 일부 스님들이 자리를 박차고 대회장을 나가는 등 단호한 거부입장을 드러냈다.

'봉이김선달' 등 불교폄훼 발언으로 불교계 공분을 촉발시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승려대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계에 공식사과했다. 정 의원은 애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재차 사과입장을 밝히고자 했으나,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차원에서 거절해 조계사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국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몇 달간 저 스스로 많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고 불교계의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됐다.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전국승려대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황희 장관.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방의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출가 수행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5,0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하는 승려대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전국의 승려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한 목소리로 자주권 수호를 외치는 전국승려대회를 열게 된 것은 그만큼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는 코로나 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선제적 방역지침을 준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 한건의 집단 감염도 일으키지 않으며 방역의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템플스테이 등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심리적 방역에도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불교계에 돌아온 것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한 종교 편향이었습니다.
국공립 합창단에서 특정 종교 편향 연주회가 일상화되는가 하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이나 해미읍성, 천진암, 주어사 등과 같이 오랜 불교 역사를 가진 곳을 특정 종교의 성지화에 지원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정 종교에 의존하며 불교의 역할을 배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조계종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의원은 조계종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는가 하면, 계속되는 사과 촉구를 무시해 왔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0월 21에는 자신의 주장이 맞고 그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하며 불교계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보를 계속하였습니다. 불교계의 분노가 들끓게 되자 50여일 만인 11월 25일 사과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조계사를 찾아왔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인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교계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니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한 캐럴활성화 캠페인이었습니다. 연이어진 기독교인 국회의원의 불교 폄하와 천주교인 장관의 종교편향 정책은 이제 종도들 모두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함께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종도들의 뜻이 오늘 이 엄동설한에 전국의 승려들을 이곳 조계사로 운집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종헌종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의사결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승려대회는 종단이 누란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고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그런 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과 불교폄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조선왕조 500년에 걸친 억압을 견뎌왔고, 현대에 들어서도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법난과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종교 편향 정책에 맞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려대회는 이제 이 땅에서 부당한 종교차별과 불교 폄훼를 뿌리 뽑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한국불교의 자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이 땅에 종교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참가 대중이 종교편향 종식 및 불교 폄훼 근절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 · 21 전국승려대회 현장

5천여 스님 모여 파사현정 외치다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렸다.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 종단의 5천여 스님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속세의 시비를 부처님법으로 넘겠다고 출가한 스님들이 다시 속세의 시비 한가운데 선 이유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서다.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를 뒤흔든 지난한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더 이상은 앉아서 볼 수 없고, 오랜 세월 우리를 살게 했던 전통문화가 소외되고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서다. 그렇게 오늘의 전국승려대회는 어렵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선 불심이다. 차별을 넘어 함께 살아가자는 설법의 법석이다. 오늘의 법석이 의미 있는 불사가 되기를 기원하며 1 · 21 전국승려대회 현장을 전한다. **〈편집자 주〉**

사진=박재완 · 노덕현 · 송현석 기자


전국승려대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이 참여했다.



승려대회에 참가한 일반 대중이 선광 스님의 결의문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종정교시를 발표하고 있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결 의 문

1,700년 한국불교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불교계는 지난 2008년 헌법을 파괴 종교편향 종식을 위해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전국의 2만여 스님들과 20여만명의 불자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범불교도대회를 장엄하게 치러냈다.

그리고 오늘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승가공동체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규탄하기 위해 또다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 바로 한국불교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이어온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유산은 공공기관의 의도된 편향과 차별로 인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전통사찰의 재산들은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당해왔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국가지정 불교문화재는 관리의 책임을 온전히 불교계의 책임과 몫으로 전가된 지 어언 60여년이다.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통문화를 말살시키며 종교갈등과 사회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의 승가대중들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보존하고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일삼는 위정자들에게 파사현정의 준엄한 경책을 내리며 범종단 승가대중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편향 불교왜곡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
–. 정부와 여당은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
–. 정부와 여당은 전통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범종단 전국승려대회 동참대중 일동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의 5000여 스님이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이 대회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승려대회에는 외국인 스님들도 참석했다.



승려대회에 참가한 한 수좌스님이 간절하게 종교편향 종식을 발원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장관의 사과영상이 송출되자 봉암사 스님 등 일부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발 원 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세간의 청정한 길 밝게 열어주시고
거룩한 공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 참가한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발원하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큰 가르침을 헤아리지 못하여
소유의 독선, 권력의 독선, 종교의 독선에 매몰되어 가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배타적 행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만들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시비와 분별로 나와 남을 구별하고
공정과 평화의 가치는 쇠락하였으며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천 7백 년 한국불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자리매김 하였건만
이를 부정하는 위정자들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우기 위해
배척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의 세상이고 가진 자만의 세상이듯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민족정신에 반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어둠 속을 방황할 때 부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시련 속을 헤매일 때 부처님의 고행을 보이시어
용기를 배우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서원을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향해 이웃과 함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모든 생명이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큰 물결이 되어
다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사현정의 깃발 높이들고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범종단 승가대중은 부처님 전에 참회와 발원을 올리오니, 한량없는 자비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비대면 홍보 강화로 장기기증 등록 확대”

생명나눔, 1월 17일 간담회서 신년계획 발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 저조
조혈모 등록, 혈액카페 활용
장기기증 등록, 온라인 모집
MZ세대 대상으로 홍보 강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월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신년계획을 밝히고 있다. 스님은 이날 비대면 홍보강화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확대할것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로 조혈모세포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비대면 홍보를 강화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나선다.

장기기증을 비롯한 의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월 17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시대를 감안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MZ세대 감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생명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부대 및 대학 내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면으로만 등록 가능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생명나눔은 안내문서와 비대면 교육을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생명나눔은 올해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모집 목표를 2300명으로 설정, 60명을 실기증자로 연계할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혈액원 헌혈카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헌혈카페 최대 3개소에 홍보 부스를 설치, 헌혈자를 대상으로 희망등록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과 연계돼 있는 전국 80여 개 간호대학에 조혈모세포 희망프로젝트 안내 문서를 발송하고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 희망등록자 수를 대폭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대비율 40%대에 머무르며 저조한 성과를 거뒀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을 강화키로 했다. 법인 공식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활동가를 모집,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동호회 및 지역 맘카페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등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나눔은 인력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청년인턴 채용을 통한 MZ세대에 맞는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나눔을 주제로 틱톡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등을 활용해 MZ세대 감성에 맞는 홍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청년인턴 채용은 국내 청년 일자리 마련 및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공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발굴해 신규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 진행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올해부터 실시하며 수도권 지역 학교들과 업무협약 확대, 환자치료비 지원금 증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상이 팍팍해지고 힘든 한해였음에도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열정은 쉼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불교계에서 생명나눔을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 코스맥스 불교문화 기반 상품개발

18일 산학협력 교류 협약 체결


(사진 왼쪽부터)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가 뷰티 기업과 손잡고 불교문화를 기반한 화장품 제작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월 18일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기업 코스맥스(회장 이경수)와 ‘산학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을 비롯해 심상배 부회장, 박명삼 부사장, 강승현 상무, 이준배 이사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관규 연구부총장, 임대운 연구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공동연구 △불교 기반 산학협력 모델 창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호 간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동국대의 사회적 책무와 코스맥스의 사회적 · 윤리적 기여를 다하기 위한 ESG 경영도 함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사업화 모델을 발굴해 동국대 건학이념 구현과 코스맥스의 한국 전통문화 기반 사업화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함께 협약식 이후 이경수 회장은 화장품 공학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공과대학 화공생물공학과 등 4개 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동국대의 연구 및 문화역량과 코스맥스의 ‘헬스&뷰티’ 기술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K-뷰티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동국대가 또 불교계가 가진 많은 자원을 활용해 코스맥스와 함께 제품 개발 및 연구, 마케팅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수 회장의 장학금 기부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달해주신 장학금은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여성개발원, 공의없이 탈종단 결정”

이주현 부원장 등 1월 18일 기자회견서 주장

포교원 ‘정관 개정’ 요구 거부한
여성개발원 결정, TF독단 지목
“총회 열고 회원 공의 모아달라”

사무국 “다양하게 의견수렴했다”
포교원 “공의 없는 결정에 유감”

최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포교단체 해지를 통보받은 불교여성개발원 내부에서 해지사태를 초래한 ‘정관 개정 불가’ 결정이 일부의 독단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현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과 문명하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이혜경 위즈덤 합창단 부단장 등은 1월 18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지홍 스님과의 갈등 과정에서 투쟁했던 강경한 사람들로 구성된 TF팀이 개발원을 본질에서 벗어나 탈조계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단체 해지까지의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TF팀이 2021년 10월 7일 첫 대면회의를 했으며, 그후 몇차례 회의 후 단톡을 이용해 회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운영위나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TF팀 회의결과에 따라 정관변경을 할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음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정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탈조계종단을 의미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일반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지당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부원장의 메시지를 본 여성개발원 108인회 회원들은 단톡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하 불교여성개발원 이사(108인회 위즈덤합창단장)도 “뉴스에서 해지 내용을 접했다. 이사회, 총회를 열지 않고, 해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엄청난 일을 겪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혜경 108인회 위즈덤합창단 부단장도 “여성불자의 능력 발현을 위해 회원들이 봉사하고 있다. 포교단체 해지까지 이렇게 TF가 운영됐는지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부원장은 “TF회의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언성을 높이는 인사들로 유야무야됐다. 지금이라도 총회 등을 통해 여성개발원 회원들의 공의를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은 1월 18일 홈페이지의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원 포교단체 해지 관련 입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23일 전임원장회의, TF와 운영위원 간담회를 통해 정관변경 불가 결론을 내렸다”며 “이사들과도 단톡방을 통해 공유했고, 김선옥 원장이 포교원회의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여성불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관회복을 하지 않겠다고 보낸 공문 내용이 이사회나 총회 결의가 아닌 TF팀 결정이었음에 깊은 유감”이라며 “정관회복시 언제든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의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보 불교문화재 2점 경매나왔다

계미명금동삼존불상 등 K-옥션에 경매로 나와
간송미술관 재정난 원인
27일 경매… 향방 주목


두 새겨진 일광삼존(一光三尊) 양식으로, 국보 ‘동신묘명삼존불’과 닮은 점이 많다. 광배 뒷면에 새겨진 글에 따르면 백제 위덕왕 10년(563)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불교문화재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이 경매로 나왔다. 국보가 경매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송미술관은 1월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보 2점 매각을 진행하려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소장품의 매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간송미술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은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은 6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호신불로 유행한 금동삼존불상이다. 높이 17.7㎝ 크기로, 추정가는 32억~45억원이다. 한 광배 안에 주불상과 양쪽으로 협시보살이 모

금동삼존불감은 높이 18㎝ 크기로, 사찰 내부에 조성된 불전을 축소해놓은 듯한 형태다.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의 목조건축 양식과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경매는 1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진행된다. 현재 경매 추정가는 28~45억 선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응찰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해 문화재 구입 예산이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구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지도자 "임인년, 불교 자주권 수호" 발원

종단협, 1월 18일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종교편향 저지 통한 사회통합
올해 대선서 공명선거 당부해
정치권 인사 대거 동참 '눈길'
文 "불교 가르침 널리 퍼지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각 종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올해를 불교 자주권 수호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다종교사회의 모범국가로 만들고자 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불교 자주권 수호에 뜻을 모았다.

원행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당부한데 이어, 올해 예정된 대선 등에서의 공명선거, 종교편향 저지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당부했다.

스님은 "올해 불자들이 중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욕지족하고 친환경적 생활습관 길들이기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보살행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며 "특히 정치나 공공기관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종교적 편향사례들로 인해 더 이상 불교계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노력해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의 모범국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시국에 부단한 노력을 이어온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데 이어 "이같은 노력과 달리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정신과 거리가 먼 일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불교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불자들의 몫임을 알고 불자들의 사자후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앞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일은 인연에 맞춰 가고옴이 분명하니 항상 무욕의 마음으로 무상의 도리를 지키면 모든 일이 원만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도 신년발원을 통해 "무시무종의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사자후는 우렁차고 구류중생의 가슴 속에 부처님 일대시교는 밝고 밝건만 탐진치 삼독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중생의 땅은 여전히 오탁악세에 머물러 있다"며 "종단협 사부대중은 더 큰 원력으로 불일증휘의 지혜를 연마해 더 큰 정진으로 법륜상전의 정토를 넓혀가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청와대불자회장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국회정각회 소속 주호영 · 이헌승 · 조명희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김영배 · 오영훈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조기열 국회직원불자회장, 김영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사회를 맑히는 불교의 가르침과 역할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불교는 물이 가득찬 연못과 같이 고요하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국에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 온 불교계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자연과 깊이 연결돼 있음을 알고 익숙함 대신 불편함을 선택하며 점차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변화해 가고 있다. 모두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라며 "불교와 큰스님들의 가르침이 멀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대독에 앞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교가 앞장서고 희생해 주셨다"며 "불교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속히 아물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사회적 위기 속 불교계가 무소의 뿔처럼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원한다"며 "포용과 통합이 중요한 시대, 불교의 자비정신이 연등과 같이 빛나 우리사회를 맑히길 바라며 자비심과 화쟁정신의 가르침을 따라 국태민안과 불교중흥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만들 평등한 세상"

조계종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량유세 동참

1월 19일 중구 · 용산구서 진행돼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 있어"
2월 25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서

"만들자, 만들자, 차별금지법(평등~),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월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부암동재래시장 앞을 지나는 유세차량에서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 주제곡을 개사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차량 옆면에는 '차별금지법' 이란 문구가 빨강, 파랑 하트 무늬와 함께 쓰여 있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이끄는 유세차량이다.

유세차량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을 외치는 이들은 바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유세단' (이하 유세단). 이날 거세지는 눈발 속에서도 유세단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지금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벌금지법 있는 나라' 등의 글귀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후암동에서 시작해 이태원과 한남동, 서울역까지 중구와 용산구 곳곳을 누볐다.

유세단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 63일 농성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다.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 서울 시내 곳곳을 유세차량과 도보로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1월 19일 중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진행된 유세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동신 스님, 최종진 사회노동위원, 양한웅 집행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이날 출발지에서부터 유세차량에 오른 지몽 스님은 직접 제작한 대본을 읽어가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몽 스님은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우리 일상을 배려와 공존의 삶으로 이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19일 중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량 유세에 동참했다.

유세단 10여명은 유세차량을 뒤따르며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전했다. 눈보라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유세단에 관심을 보인 몇몇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을 표하며 유세단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유세는 오후 7시, 해가 다 져서야 마무리 됐다. 최종진 사회노동위원은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불평등의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가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은 2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금요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수도권 각 지역을 돌며 시민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韓불교 중흥 위한 지도자 네트워크 출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불교포럼 창립 10년 만에 재구성

윤석열 · 안철수 대선후보 참석

불교에 기반을 둔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인적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불교리더스포럼' 을 출범하고 불교외호 세력이자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날 자리에는 불교계 안팎 인사는 물론,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7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불교리더스포럼 5기 출범식을 봉행했다. 불교리더스포럼은 10년 전 창립한 불교포럼을 계승한 불교지도자네트워크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불교리더스포럼 5기 상임대표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선임됐으며 고문단장에 김동건 불교포럼 초대대표, 간사장에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국장이 소임을 맡은 가운데 지역포럼과 법조 · 국회 · 경제 ·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활동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됐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은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을 봉행했다.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과 목	강의내용
불 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명 상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상 담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

부산 · 경남, 설날맞이 나눔행사 풍성

지역복지관 · 사찰 · 불교기관 등 백미 · 성금 등 소외이웃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 경남에서 활동하는 불교계 복지관과 사찰 등 각 단체들이 새해 설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풍성히 마련했다. 사진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해 명절맞이 나눔을 진행한 모습.

부산 · 경남에서 활동하는 불교계 복지관과 사찰 등 각 단체들이 새해 설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풍성히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은 1월 28일 설맞이 정(情)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해 설을 맞아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재가복지 대상자 211세대에 떡국 떡 및 과일, 사골곰탕 등 먹거리 후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해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받고 있다. (051)893-5034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1월 25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2층에서 제32회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신년하례를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나눔 행사는 1부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는 자비나눔과 2부 위안연 및 하례회를 진행한다. 이날 창원시불교연합회는 자비나눔 성금은 5000만 원과 성품을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금강 장학생, 독거어르신,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이하 쿠무다)가 1월 17일 해운대구청 구청장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쿠무다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품기부 일환으로 백미 20kg 108포를 해운대구에 전달했다. 백미는 해운대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쿠무다는 "앞으로도 쿠무다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후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쿠무다는 1월 12일 신축 복합명상문화센터 지하 1층 공연장에서 영산재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창원 화개산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사**(주지 혜명)가 1월 19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자비의 쌀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전달되며 백미 150포(525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백미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 이웃을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주지 혜명 스님은 "배고픈 이들이 없고 밝고 향기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1월 27일 복지관 내에서 '새해용품 전달식 및 합동차례상 차리기'를 진행한다.

이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총 1000세대를 대상으로 설날 떡국거리와 생필품 선물세트, 방역물품을 후원한다. 아울러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기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합동 차례상과 찾아가는 차례상을 지원한다. 차례상을 위해서 과일, 떡, 생선, 고기 전 등 차례 음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051)628-6737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광안노인복지관**(관장 손정환)은 설명절을 맞아 '정(情)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광안노인복지관은 설날 전인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100가구를 방문하고 직접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광안노인복지관은 선물꾸러미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금 및 식료품, 생필품, 방역물품 등 후원용품을 지원받고 있다. 모금 기간은 1월 21일까지이다. (051)715-6099

천호월서희망재단 설맞이 자비나눔

이사장 월서 스님 1120만원 후원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1월 19일 공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022년 설맞이 공덕동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120만원 상당의 김치도 후원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네팔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등 불교국가 저소득계층의 구호활동 및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월서 스님은 "우리미래인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부산, 대중공양 올려

동안거 법화경 독송수행 회향기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포교사단 부산)이 1월 20일 범어사에서 '2022년 동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 회향'을 기념하는 대중공양을 올렸다.

포교사단 부산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70일 간 〈법화경〉 독송 수행을 이어왔다. 〈법화경〉 독송 수행은 동안거 기간 동안 지혜를 얻고 코로나로 자칫 침체될 수 있는 포교 원동력을 이어갈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법화경〉 독송 수행에는 포교사단 부산 지역단 단원 650여 명 40개 팀 전원이 동참했으며 릴레이로 매일 독송해 〈법화경〉 전권 10권을 독송했다.

독송기간 동안 포교사단들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동참금을 후원하고 나눔과 대중공양에 동참했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단장, 정분남 자문위원, 임한규 · 이양희 · 주태돈 부단장, 조봉례 남부총괄팀장, 김옥희 지역중앙총괄팀장 등 임원들이 동참했으며, 스님들의 동안거를 후원하는 영양 음식을 손수 만들었다. 공양 메뉴에는 겨울철 특식으로 찐빵과 짬뽕 등을 비롯해 김밥, 유부초밥, 과일 등 풍성하게 마련했다.



대중공양은 총 200인분을 마련해 스님과 범어사 사중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반 소임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털신 150개를 증보 공양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취임

1월 17일 주지 이취임식 거행

창원 도심포교 효시인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1월 17일 대작불사 후 환희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축원을 시작으로 반야심경 봉독, 삼귀의. 도문 스님 이임, 광우 스님 취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임한 광우 스님은 인사말로 "말 보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정법의 가치실현을 보여 드리겠다"며 "신도 대중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고생하신 도문 스님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은 이임사로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스님들과 함께 잘 할 걸 등 후회가 많다. 어디가서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코로나 기간 불사가 진행되며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았다. 새로운 주지 스님과 함께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우뚝 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날 취임한 광우 스님에게는 안미옥 신도회장이 축하꽃을 전달했으며, 이임한 도문 스님에게는 김선정 고문이 감사꽃을 전달했다. 또 도문 스님과 광우 스님은 손을 맞잡고 환영과 감사 인사를 나눠 정법사 대중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인터뷰] 청수사 주지 계휴 스님

2006년 국립공원 내 창건… 맑은 기운 모이는 '청수' 의미

순국선열과 역사속 억울히 희생된 무주고혼 천도와 기도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 안심법문을 나누는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산 청수사 주지 계휴 스님〈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청수사는 예전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산 자락 국립공원에 위치한 소담한 사찰. 청수사의 '청수'(淸水)는 맑은 샘물이 있다는 의미다. 북한산 자락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함께 청량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기에 이름 붙여졌다.

계휴 스님이 청수사에 주석한 지는 16년이 됐다. 스님은 "국립공원이라 건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지만 계곡을 타고 북한산 기운이 내려오는 곳이라 기도 성취가 잘되기에 터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서는 1년에 한차례 나한대재와 산신대재를 지낸다. 특징은 두문동 72현을 비롯해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천도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때는 사찰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영가들을 위해 사찰 외부에서도 상을 따로 차려 지낸다. 사찰 위에 자리한 나한전에서도 별도의 호국영령 나한기도가 이어진다.

계휴 스님은 "국난 속에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아무도 기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재를 지내기로 발심했다"며 "지금은 제사가 점차 자리 잡으며 후손들이 알고 찾아와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청수사에서는 우란분절 조상천도를 기원하며 6월 초하루부터 7월 15일 회향까지 일곱 차례 재를 지낸다. 축원문을 읽을 때는 여느 사찰과 달리 자손들에게 술과 과일 등 공양물을 영전에 올릴 기회를 준다. 음식 및 꽃공양을 매번 다르게 올리고 공양물도 정성을 기울여 다양하게 준비해 신도들에게 호응이 높다.

또한 청수사 법당에는 고려시대 국운융창을 기원한 팔관등도 걸려있다. 호국선열을 기리고 국난극복을 염원한다는 의미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스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충분히 이를 이겨낼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계휴 스님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오히려 오지 않을 것도 오게 됩니다. 해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춥다고 했는 말처럼, 춥다고 가만히 움츠리면 밝은 광명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또한 "비가 오는 날에 비가 와서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불쾌할 것"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을 찾게 된다면 복은 저절로 온다"고 말했다.

계휴 스님은 앞으로 청수사를 자연 속에 숨 쉬는 치유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고 바램을 털어놓았다. 그 대안으로 청수사 아래 작은 갤러리인 '청수 갤러리'를 만들었다. 또한 사찰 옆으로 나있는 북한산 둘레길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연을 벗삼아 휴식을 취하고 명상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신도들을 지치게 하는 대형불사가 아닌, 지금 불편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함께 그대로 어우러지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찰로 가꿔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마일운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日, 온라인 통한 실시간 사찰참배 '화제'

거동 불편한 이들 위해…가고시마 사찰 '묘코지'서

30분간 사찰안내 · 예불 · 법회
실시간 중계 매회 뜨거운 호응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노인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고립 생활에 대한 문제가 심각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고 온라인으로나마 바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사찰참배'가 일본에서 화제다. 일본의 온라인 매거진 '테논'은 1월 12일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찰참배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온라인 사찰참배'를 진행하는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의 관광도우미 츠츠미 레이코 씨는 "처음에는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여행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리던 것이 시작"이라며 온라인 참배가 시작된 연유를 전했다.

레이코 씨는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100세가량의 어르신께서 '올해는 백중날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니 절에 갈 수 없고, 집안 불단도 방치돼 이대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힘들어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온라인 여행을 관광지가 아닌 사찰로 돌려 온라인 참배를 통해 어르신들 소원을 풀어 드리자고 생각했다"고 시작 동기를 밝혔다.

레이코 씨의 생각에 기꺼이 응한 곳은 가고시마 시내에 있는 사찰 묘코지(妙行寺)였다.

묘코지 주지 이노우에 요리아키 스님은 코로나 유행 전부터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시설들을 돌며 봉사활동을 해왔다. 요리아키 스님은 "본 사찰에서는 '연말연시에 직접 참배를 갈 수 없지만, 적어도 법문은 듣고 싶다'는 고령 신도들의 바램에 호응해 작은 종을 들고 복지시설들을 돌며 법문하는 '찾아가는 제야의 종 법회'를 진행해 왔다"며 "거동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사찰을 참배하고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로의 경험과 방법을 살려 '온라인 사찰참배'를 시작했다. 관광도우미인 레이코 씨가 묘코지를 참배하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찰 모습을 복지시설에 생중계했다. 중계시간도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가장 부담없는 시간대에 30분 정도로 설정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온라인 사찰참배' 모습. 사진출처=테논 타임즈

해당 참배에 대한 첫 공지는 가고시마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에 전했으나, 소문을 타고 일본 각지에서 신청이 들어와 시범운영을 위해 입소자가 제일 많은 6곳의 시설에 생중계했다.

중계는 온라인 여행을 방송했던 레이코 씨의 경험을 살려, 레이코씨가 묘코지에 모인 직접 사람들을 가이드 하듯이 법당까지 길을 안내했다. 법당에서부터는 요리아키 스님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예불을 올리고 법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첫 시범운영 이후로 계속해서 각 시설과 참가자들에게서 뜨거운 호응을 얻어 정기적으로, 50개소 이상의 시설이 참가해 타 사찰들과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사찰참배를 실시한 한 시설은 "처음엔 반신반의로 어르신들의 재미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스님이 직접 인사를 건네고 함께 경을 읽는 모습에 모두 기뻐했다"며 "특히 마음속의 불안이 가셨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후기를 전했다.

中, 티베트 불교 박해 문화대혁명 재현인가?

사찰 · 불상 철거…공개적 신행활동 제한

베이징 올림픽 개막 앞두고
종교 권리 억압 인권유린도

세계평화와 우호를 목적으로 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티베트 불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가 다시금 논란이다. 일본의 '에폭 타임즈'와 '티베트 하우스 재팬'은 1월 11일 중국정부의 티베트 불교 박해와 인권유린에 대해 보도했다.

에폭 타임즈는 현지 정보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동부티베트 지역 주민들이 건립한 30m 높이의 대불을 철거했다"고 전했다. 불상은 현재 스촨성으로 편입된 구 티베트의 닥고(Draggo)지역에 2015년에 세워진 것이다.

에폭 타임즈는 "닥고 지역은 1973년 대지진으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나온 곳"이라며 "지역 주민과 스님들의 발원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이어지는 재난을 막기 위해 4000만 위안(한화 약 75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고 전했다.

'티벳하우스재팬'은 "해당 불상은 중국정부의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았으며, 건립 당시 지역 당국으로부터 감사장 등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을 시찰한 고위관료의 지적을 받았고, 군당국이 관련 인허가를 무효로 했다"며 불상이 철거된 사유를 전했다. 중국 당국은 단순히 해당 불상뿐만 아니라, 명령을 구실로 불상 주변에 설치된 45구의 마니차도 철거했으며, 주변에 걸린 기도깃발과 번등의 불교용품들을 무단으로 소각했다.

이와 함께 불상을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사찰인 간댄 남걜링 사원이 관리하는 강원과 학교 등에 대해 인허가 서류가 미비하고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구실을 들며 시설을 폐쇄 및 철거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귀가 조치시켰다. 학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던 학생 130명의 학적은 말소해 타 학교로의 전학요청 등도 모두 무시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창립 이래 불교는 물론 티베트어와 영어 등 티베트 불교 교단에서 제공하는 고급교육기관으로 지역 교육거점으로 유명했다.


중국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있는 학교. 사진출처=티벳하우스재팬

현지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티베트의 종교, 언어, 문화에 대한 강렬한 공격이다. 현재 닥고에서의 불교박해와 인권유린은 마치 문화대혁명 시절과 같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현시점에서는 실제로 파괴된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을 입수할 수 없다. 티벳하우스재팬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종교적 권리와 언어권 등 스스로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실천할 티베트 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72세 태국 노승, 태국 전역 도보 순례

1500km 걸으며 주민들 만나
무소유 · 나눔 실천 직접 보여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이 태국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72세의 태국 노승이 태국을 가로지는 1500km의 길을 도보로 순례해 화제다.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와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1월 12일 노승의 순례를 보도했다.

맨발로 순례길에 오른 72세 노승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은 태국 남부 해안의 휴양지 푸켓 섬에서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이자 스님의 고향인 나콘 파놈까지 1500km의 순례를 걷고 있다.

지난 1월 9일 오전, 나콘랏차시마주 부아야이군에 도착한 스님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맞이하는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통적인 인사를 건넸다. 환영을 위해 나온 주민들은 스님께 화환과 식수, 음식 등을 건네며 스님을 맞이하고 가피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스님은 풀을 원통형으로 엮은 봉으로 신도들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려 축복하는 태국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은 출가 전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1969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이다. 2009년 비구계를 받은 뒤, 자신의 발원에 따라 매년 태국 종주순례를 실천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순례 중 신도들에게 받은 물품 대부분은 지역학교와 병원에 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님의 순례는 옛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을 위해 유행하던 담마 야트라(Dhamma yatra)라는 전통에서 온 것으로, 현대에 이 순례를 실천하고 있는 스님은 거의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스님을 환영하기 위해 길에 나온 신도는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은 모든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고 선행을 행하는데 삶을 바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라며 감격했다. 현재 스님은 태국에서 무소유와 자비행의 실천을 직접 보여주는 롤 모델로 존경받고 있다. 스님은 최근 마지막 목적지인 나콘 파놈에 이웃한 콘캔주의 웡노이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불교사원 인근 사격장 건설 상소 무효

삼예링 사원, 개발자 상대로
온라인 탄원서 2만 명 반대

영국 불교 사원 근처의 사격장 건설 불복 상소가 무효로 판결돼 화제다.

영국 주요 언론지 'BBC'는 1월 15일 불교 사원 근처 사격장 건설에 대한 상소 무효 소식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스코틀랜드 덤프리스 지역 삼예링(Samye-Ling) 사원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 사격장 건설 계획(클렉힐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사격장 건설 예정지는 사원을 사이에 두고 있어 삼예링 사원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의회의 계획에 불복한 삼예링 사원 관계자들과 불자, 인근 주민들이 시의회와 개발업자를 상대로 상고했고 '무효'로 판결 났다.

사격장 건설 계획은 애초 그것이 '주요한 발전' 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발 업자들은 이 계획을 지역 개발업으로 처리해 승인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삼예링 주지 예셰 린포체는 "개발업자들이 우리의 평화와 화합을 위협하고 있으며 온라인 탄원서에 2만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개발업자들은 "사격장과 사찰 사이 공간은 임업이나 농업 용지이며 어떠한 물질적 변화도 겪지 않았다. 사격장 건설 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사격장 건설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사격장이 있는 지역의 범위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삼예링 사원은 영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던 시기에 세워진 초창기의 불교사원으로 티베트 불교 카규파에 소속돼 있다. 서유럽권의 최대 불교사원으로 꼽히는 이곳은 현재 약 60여 명의 사부대중이 상주하며 수행정진 중이다. 또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불자들이 안거와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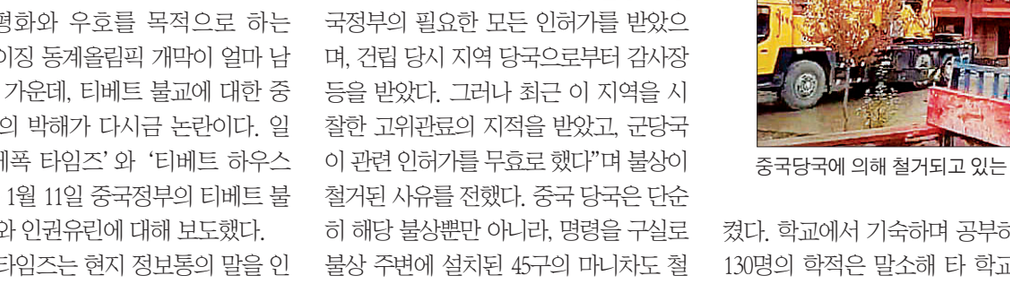
輦(연) 幡(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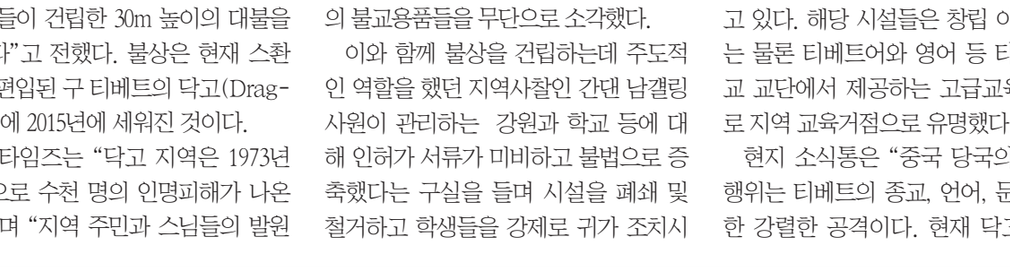
∞ 창립 40주년 ∞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3단 조립식

*몸체길이 가로 650x세로 1100

*가볍습니다. 20kg

닷집번


반야용선

규격 : 높이 1300 x 길이 1600

감사행사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신(퇴색 및 훼손)된 번 교환시 20% 할인금액으로 새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월 30일 까지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

예순 스님과 구순 노모의 마지막 여행

로드다큐멘터리 영화 '佛효자' 5월 개봉

마가 스님과 어머니 여행 영화로 제작
전국 사찰 아름다운 풍경에 '孝' 담아내
마곡사 등 2년여 동안 30여 차례 여행
후반 편집작업, 4월 15일 시사회 예정



영화 '佛효자' 스틸컷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저는 불효자입니다." / "다음 생에 만나갖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순을 넘긴 출가자와 구순을 넘긴 그의 노모가 함께한 '지구별 마지막 여행'을 영상에 담은 로드 다큐멘터리 영화가 5월에 관객을 찾아간다.

2000년 대 '자비명상'으로 불가적 힐링의 시대를 열었던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이 40년 만에 속가의 어머니(박종순)와 떠난 2년여의 여행을 영상으로 옮긴 영화 '佛효자'다. 영화의 제작사인 부디 스튜디오(대표 최진규)는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풍경과 함께 효(孝)의 의미를 담은 영화 '佛효자'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어머니, 누구나 한 번 쯤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할 이름 어머니. 스무 살에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해 어느덧 육십을 넘긴 수행자도 가슴속에선 그 이름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다. 마침내 가장 뜨겁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 어느 날, 스님은 구순의 노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노모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갈은 아들의 가슴을 묵직하게 두드렸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달려간 스님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부처님 울타리로 모셔왔다. 그리고 스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 스님은 걷기도 힘든 어머니를 등에 업고, 휠체어로 전국의 사찰을 여행하며 끊어졌던 세월의 여백을 채워간다. 영화 '佛효자'는 그렇게 시작됐다. 연출을 맡은 최진규 감독이 마가 스님과 박종순 여사의 여행에 동행하게 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마가 스님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의 의미가 담긴 법당 '미고사'를 캠핑카에 만들어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며 지난 세월의 오해를 풀고 어머니의 다음 생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린다. 여행의 마지막 날 스님은 낡은 보자기에 싸인 어머니의 선물을 받게 되고 다가오는 이별을 위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한다.

영화는 마가 스님과 그의 어머니가 걸어가는 여행을 뒤따르며 하루하루 생과 이별 속에서 모자가 그려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구순을 넘긴 노모가 예순을 넘긴 아들스님 머리에 빈 수박껍질을 씌우고 목탁을 두드리듯 수박껍질을 두드린다. 스님은 노모의 장단에 맞춰 "나무이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왼다. 수박씨를 얼굴에 붙이고 재롱을 떠는 스님은 "애기 때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 해주시는 것 같네"라며 어리광을 부린다. 나란히 앉아 백팔염주을 마주 잡은 아들과 노모는 그리움으로 살아왔던 세월을 말없이 주고받는다. 멈추고 싶은 시간이 흐른다. 스님은 휠체어에 노모를 모시고 푸른 연밭을 거닐고, 굽이굽이 계단을 업어 오른다.

영화는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가르친 불교경전 '부모은중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뒷전으로 밀린 효의 가치를 스님과 어머니의 여행을 통해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92세의 어머니는 60이 넘은 아들의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다. 어렸을 때 챙겨주지 못한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였다. 아들은 한 번도 함께 여행을 해보지 못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의 사찰을 돌며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고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 영화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전하는 힐링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는 유네스코 7대 사찰 마곡사, 법주사, 부석사, 봉정사, 선암사, 대흥사, 통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다. 마가 스님과 그의 어머니는 2년 동안 30여 차례의 여행을 했다. 전국을 5바퀴 정도 돌았다.

마가 스님은 스무 살 때 월정사에서 출가했다. 스무 살의 한 청년은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한 오대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삶을 끊어내려 했지만 삶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월정사 노스님의 인연으로 청년은 살아나고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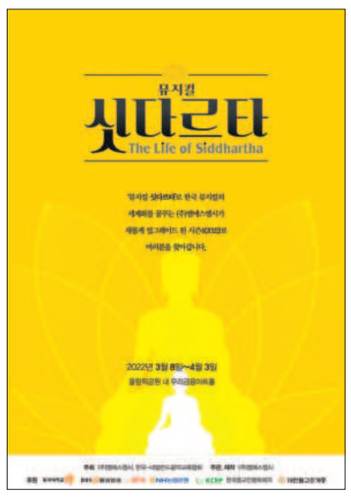
마가 스님은 2002년에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은 적이 있다. 병환의 노모는 머리를 깎고 찾아온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린다. 밥상을 받은 아들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흐른다. 마가 스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자비명상'은 마가 스님이 노모를 모실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원력에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한 시대의 국민 힐링멘토로 불렸던 스님의 '자비명상'은 모정불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최진규 감독은 "이번 영화제작을 진행하며 한국불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는 촬영을 마치고 막바지 편집 작업 중이다. 4월 15일 시사회를 열 예정이며, 부처님오신 날과 어버이날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 5월에 개봉할 예정이다.

개봉에 맞춰 전국의 가족들이 효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로 참여하는 '저는 佛효자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게 될 '佛효자 에세이' 출판도 예정되어 있다.

영화의 주인공 마가 스님은 "영화가 개봉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면서 "이번 영화 '불효자'를 통해 불교에서의 효의 의미와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뮤지컬 '싯다르타' 시즌 4 열린다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신유와 간미연 등 캐스팅

2019년 9월 5일 초연된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연출 최민욱)'의 시즌 4의 공연이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다.

네 번째 시즌으로 새롭게 돌아온 뮤지컬 '싯다르타'의 새로운 캐스팅 라인업도 발표됐다. 태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의 길을 가는 고타마 싯다르타 역에는 트로트 가수 신유와 뮤지컬 배우 박시원이 캐스팅 됐으며, 싯다르타를 끊임없이 번뇌의 길로 유혹하는 마라 파피아스 역에는 고유진, 윤형렬, 윤진웅이 캐스팅됐다.

콜리야국 공주이며 싯다르타의 아내인 야소다라 역은 간미연, 권미희, 박혜민이 함께하며, 카필라국의 왕이자 싯다르타의 아버지인 슈도다나 역은 박태성, 유기호가, 싯다르타의 시종이자 그의 유년기시절부터 함께한 찬나 역은 정휘욱, 한상욱이 야소다라의 시종인 우팔라 역은 안지현과 최고운이 캐시팅되어 17명의 앙상블과 함께 뜨거운 무대를 선보인다.

싯다르타 역의 신유는 뮤지컬 '비애비'에 출연했으며, 앨범 〈Luxury Trot Of Shin Yu〉 등을 발표했으며, SBS 드라마 〈승부사〉 등 다수의 OSYT에 참여했다.

싯다르타의 역의 박시원은 뮤지컬 '블루레인', 연극 '만추', 드라마 '상어' 등에 출연했다.

야소다라의 역의 간미연은 뮤지컬 '킹아더', 드라마 '무림학교'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SBS 러브 FM '간미연의 러비나잇'을 진행하고 있다.

야소다라 역의 권미희는 앨범 '마음' 등을 발표했으며, 방송 '풍류대장' 등에 출연했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를 역임했다.

야소다라 역의 박혜민은 뮤지컬 '월화전' 등에 출연했으며,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뮤지컬 부분 신인상을 수상했다.

2019년 9월 5일 초연된 뮤지컬 '싯다르타'의 이번 네 번째 시즌에서는 각색과 연출을 맡은 최민욱과 안무를 맡은 김도후가 새롭게 참여하여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드라마의 구성을 탄탄하게 하여 밀도 있게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조범준(작곡가/음악감독)의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여 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였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고대인도의 카필라 왕국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연대기가 아닌 3개의 에피소드, 신부를 맞이하던 날, 출가를 결심하던 날, 붓다가 된 날, 세 번의 '그 날'로 구성한 대형 창작 뮤지컬이다. 총 공연시간은 150분(인터미션 포함)이다.

새롭게 각색과 연출을 맡은 최민욱은 뮤지컬 'Hear my song' 시즌 1 · 2, '동행', '거정레스토랑', 퓨전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가' 등을 연출했다. 공연문의 1661-4191. 박재완 기자



“탄허, 21세기 원효… 이젠 ‘탄허학’ 시작할 때”

‘탄허학 연구’ 펴낸 문광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광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2만 8000원



문광 스님은… 해인사 원당암에서 각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 · 불교학과 학사학위,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 석사학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에 제월당 통광선사로부터 전강 받아 경허–한암–탄허–통광으로 이어지는 전통 강맥을 전수했다. 법호는 법운(法雲)이다.
제3회 원효학술상(대학원생 부문)과 제1회 탄허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이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이다. 저서로는 〈탄허선사의 사교회통 사상〉〈한국과 중국 선사들의 유교 중화담론〉 등이 있다.

탄허택성(呑虛宅成, 1913~1983) 대종사는 평생을 불교 경전 역구와 번역에 매진하며 선교를 회통한 선지식이었으며, 동양 고전과 서양 철학을 융섭해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던 선지자였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탄허 대종사를 “몸은 산사에 머물렀으나 눈은 우주의 운행을 꿰뚫었다”고 평했다.

이렇듯 탄허 대종사는 불교의 경 · 율 · 론과 선(禪)을 비롯해 유교, 도교, 기독교를 모두 섭렵했던 수행자이자 사상가였다. 그렇지만 대종사의 사상에 대해 대중들은 미래를 꿰뚫은 예언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어떤 깊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간 탄허 대종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 학승의 열정은 탄허 대종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은 지난 2013년 탄허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탄허학’을 주창했다. 당시 스님은 “대강백, 대학승, 대선사, 대종사, 대석학, 교육가, 사상가, 철학자, 대도인 등등 그 어떤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한 인물이 바로 탄허 선사”라고 규정하며 “탄허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찬란한 가르침인 화엄(華嚴)의 사사무애(事事無碍)로, 유불선(儒佛仙)의 심성수련(心性修練)으로, 참선(參禪)과 간경(看經)의 겸수(兼修)로 지구인 전체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한다. 이젠 ‘탄허학’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9년, 문광 스님은 탄허 스님 연구로 최초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공로로 제1회 탄허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탄허학’을 규명 · 정립하는 연구서인 〈탄허학 연구-21세기 한국학의 새 지평〉을 발간했다.

〈탄허학 연구〉는 문광 스님이 탄허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연구한 궤적을 담고 있으며, ‘탄허 사상’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

문광 스님은 ‘탄허학’을 ‘체(體)’와 ‘용(用)’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스님에 따르면 탄허학의 ‘체’는 “마음 바깥에 외도지 마음을 이야기하면 모두 내전”이라고 했던 탄허 대종사 특유의 ‘회통’이다.

“탄허 대종사는 불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교의 심(心)이나 도교의 도(道)까지 스펙트럼을 넓혀 놓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넓게 해석했습니다. 탄허 대종사는 실제로 한문본 성경을 모두 외우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한문본에서는 ‘허심자 복의(虛心者 福矣)’라고 합니다. 대종사는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디 있냐’고 지적합니다. 즉 ‘허심자’는 ‘마음을 비운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렇듯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모두 내전이라는 게 대종사의 말씀입니다. 일주문을 저 아래까지 넓혀 놓으신 거죠.”

탄허학의 ‘용’은 탄허 대종사가 보였던 교육 · 역경 사업부터 미래학 · 경세학까지 실천적 행보라고 문광 스님은 설명한다.

특히 문광 스님은 저서에서 탄허 대종사의 미래학과 민족사상을 총괄해 ‘간산사상(艮山思想)’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대종사가 출가하기 이전에 자(字)가 간산(艮山)이었고 대종사 역학 사상의 핵심이었던 〈정역〉도 간방과 간도수를 중심으로 지축이 바로서고 역사의 종시(終始)가 이뤄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스님은 “탄허 대종사의 역학 사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정역〉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종사가 강의 때마다 〈정역〉을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계는 아직 〈정역〉에 대한 연구가 부진합니다. 30년 전에 입적한 스님의 견해에서 진척을 보인 불교계의 정역학 연구 성과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듯 선교는 물론 동양 고전, 서양 철학을 아우른 탄허 대종사를 문광 스님이 20년 동안 연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문광 스님은 “출가 당시 가졌던 의문점들이 탄허 대종사의 강의와 저서를 통해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허 대종사의 저서를 통해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던 것은 문광 스님 역시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종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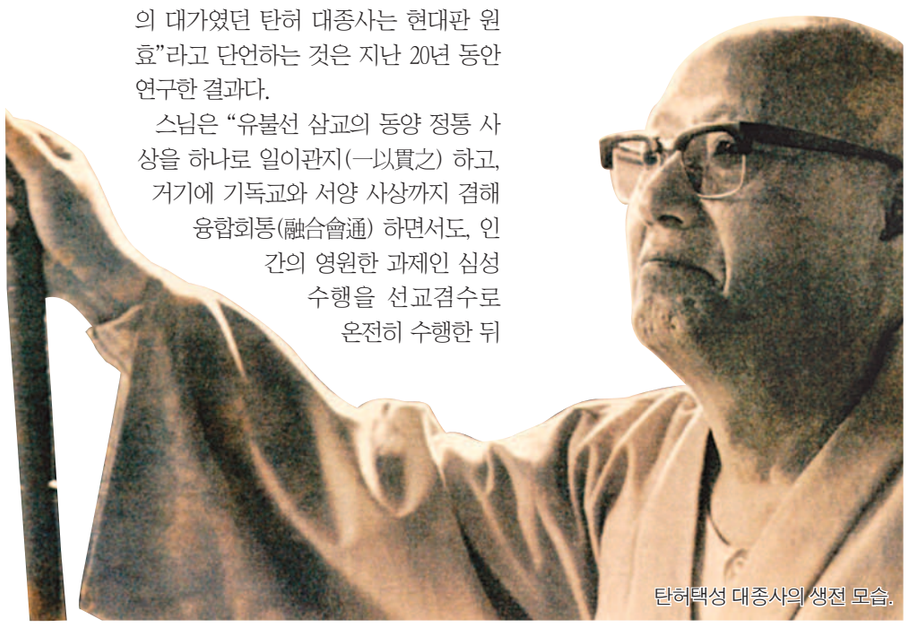
한학과 중문학 공부하던 중
불교에 관심… 출가 이어져
탄허 저서 통해 출가 당시에
막혔던 의문점들을 해결해
“마음 이야기하면 모두 내전”
‘회통’ 탄허 스님이 보인 ‘體’
易經 · 미래학 등 실천적 행보
현실적 적용 탄허 사상의 ‘用’
핵심 뽑은 國文 불교개론 통해
제대로 된 불교 접하도록 해야
한문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야

문광 스님은 한학자인 아버지에게 한학 배워 10살 무렵에는 한시를 지을 정도의 실력이었고, 대학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해 중문학을 배웠다. 이 과정에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출가하게 됐다.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한국과 중국 선사들의 유교 중화담론〉(원효학술상 수상작)인데 준비하면서 감산덕청, 우익지욱, 퇴옹성철, 탄허택성 등 한국과 중국 선사 네 분을 비교 · 연구했습니다. 한데 탄허 대종사를 제외한 3명은 연구 자료가 많은 반면 대종사의 연구는 전무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탄허 대종사를 연구해야겠다는 발원을 세우게 됐죠.”

문광 스님이 “20세기 한국 사상의 정수를 20세기 한국의 실존 인물에서 상징적으로 찾아본다고 할 때, 그 하나의 해답으로서 탄허 대종사를 꼽는다” “회통의 대가였던 탄허 대종사는 현대판 원효”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다.

스님은 “유불선 삼교의 동양 정통 사상을 하나로 일이관지(一以貫之) 하고, 거기에 기독교와 서양 사상까지 겸해 융합회통(融合會通) 하면서도, 인간의 영원한 과제인 심성 수행을 선교겸수로 온전히 수행한 뒤 제시했다. 여기에 인재 양성과 역경 · 교육 사업의 보살행까지 총망라한 20세기 한국학의 ‘학종(學宗)’은 단연 탄허 대종사뿐”이라며 “대종사의 사상은 몇몇 소수자들의 연구로 그 전모가 밝혀질 수 없는 광활함이 있다. 더 늦기 전에 ‘탄허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허택성 대종사의 생전 모습.

문광 스님은 탄허학의 연구 방향부터 승가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특히, “탄허 대종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현재 이 지구상에 펼쳐지는 모든 스마트 시대의 복잡다기한 양상들을 화엄학(華嚴學)과 정역학(正易學)의 소통, 동양학과 서양 과학의 회통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하며 “참선과 명상을 비롯한 불교의 정수와 유불선 삼교를 융합한 동양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인류를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까지 확장돼야”함을 문광 스님은 강조했다.

승가교육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시대가 바뀌어 모두가 한문과 고문을 다룰 능력을 기를 필요가 없어진 만큼 기본교육은 제대로 된 한글 개론서로 가르치고, 전문적으로 한문과 고문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문광 스님 TV’를 통해 탄허 사상과 불교를 강의하는 문광 스님은 탄허학 연구를 위해 탄허 대종사의 강의 자료 등이 디지털 아카이브화 하는 작업도 계획 중이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탄허 대종사의 아카이브가 구축돼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자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1



▶ 52회 예고
아쇼까는 숫빠라까에 군사를 훈련시킬 경비조장을 남겨 두고 떠난다. 순행은 대성공이었다. 아쇼까 일행은 웃자인 성민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는다. 왕궁에 들어선 아쇼까는 데비 부인이 딸 상가밋따를 잉태했음을 알고 더욱 기뻐한다.

바히야, 가장 짧은 법문에 아라한 되다

바다안개가 몰려와 달을 덮었다. 보름달 둘레에 둥그런 달무리가 졌다. 청동화로 잉걸불이 벌겋게 이글거렸다. 세 사람은 차가워진 밤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하인들이 간간이 짜이를 따랐다. 짜이에서는 재스민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비베깐난다 사문의 긴 이야기를 듣고는 놀랐다. 숫빠라까 상인 출신인 뿐나가 고타마 붓다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숫빠라까에는 지금도 사바르마티강 강변에 뿐나라마 터가 있는데, 왜 뿐나라마인지도 알았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물었다.

"붓다를 뵙기만 하면 아라한이 됩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문들은 지금도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아, 고타마 붓다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타마 붓다께서 가르침을 남겨 놓았으니 참으로 다행이지요. 붓다께서도 열반 전에 자기 자신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베깐난다 사문이 대답하는 사이 데바가 일어났다. 데바 맞은편에서 경비대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데바가 말했다.

"순찰을 도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부왕님께서 여기에 누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왕님께서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신 줄 몰랐소. 우리는 사문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소."

경비대장이 돌아서자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짜이 한 잔 하고 가십시오."

"부왕님께 보고 드리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아쇼까와 경비대장이 나타났다. 두 사람 뒤로는 무장한 경호군사 네댓 명이 뒤따라왔다. 경비대장이 손짓을 하자 경호군사가 가까이 오지 않고 황금야자수 뒤쪽으로 가서 보초를 섰다. 새로 가지고 온 청동화로 속의 숯덩이들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열기가 아쇼까에게 훅훅 끼쳤다. 아쇼까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말했다.

"사문의 얘기를 나도 듣고 싶어 왔소."

아쇼까는 불교에 귀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한때 스승이었던 묵갈리뿟다띳사, 꼬삼비에서 만난 순례 수도승 우빠굽따, 산치 절에 머물다가 빠딸리뿌뜨라로 간 담마팔 등도 모두 사문이었던 것이다. 비베까난다 사문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방금 이곳 출신 뿐나 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나 존자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는 이제 없습니다."

"부왕님께서 오셨으니 뿐나 존자 말고 이곳 출신 사문은 없습니까?"

"사문은 없습니다. 다만, 숫빠라까에서 살다가 고타마 붓다의 말씀을 듣고 단박에 아라한이 된 장사꾼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단박에 아라한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사꾼 바히야 다루찌야는 붓다를 친견한 뒤 바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나 데바는 장사꾼 바히야 다루찌야가 어떻게 한 순간에 아라한이 됐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억누르며 아쇼까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장사꾼이 아라한도 될 수 있는 것이오?"

"아라한이 되는 데는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소승이 기억나는 대로 바히야가 어떻게 아라한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아쇼까를 의식했음인지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바히야가 걸인이 된 사연부터 이야기했다. 달무리는 좀 전보다 더 크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비베깐난다 사문이 읊조리듯 입을 열었다.

"장사꾼들이 항해하다가 불행하게도 큰 파도를 만났지요. 그리하여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장사꾼들은 하나 둘 죽어갔지요. 그때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판자를 붙들고 있었지요. 그는 나무
판자를 붙잡고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숫빠라까 항구에 닿았습니다."

구사일행으로 숫빠라까 항구에 나타난 장사꾼이 바로 바히야였다. 그런데 '바히야'란 원래 이름에 '다루찌야'가 붙은 사연은 이러했다. 숫빠라까 거리에 나앉은 그는 알몸뚱이였다. 해엄을 치기 위해 거추장스런 옷을 바다에 다 버렸던 것이다. 바이야는 나무판자로 자신의 그곳을 가린 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나아가 앉았다. 사람들은 바이야가 나체 수행자인 자이나교 구루인 줄 알고 그릇에 쌀이나 죽을 주었다. 그러면서 나체수행자 같은 바히야를 칭송했다.

"저 구루는 아라한일 거야."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자이나교 무소유 수행자가 분명해."

어떤 사람은 바히야에게 새 옷을 구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바히야는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쌀이나 죽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바히야는 옷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주어버렸다. 그러면서 바히야는 자신이 정말 본래는 아라한이 아닐까 하고 착각했다. 자신의 그곳을 나무판자로 가리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합장하며 존경을 표시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바히야를 존경하여 바히야 다루찌야라고 불렀다. 다루찌야란 '나무 옷을 입은' 이란 뜻이었다.

그런데 마하브라흐마(mahā-brahman)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는 바히야를 발견하고는 몹시 안타깝게 여겼다. 바히야가 전생친구였기 때문에 타락한 그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감이 들었던 것이다. 마하브라흐마는 밤중에 바히야를 찾아가 충고했다.



"바히야여, 네가 아라한이라고? 너는 아라한이 되려고 어떤 수행도 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러자 바히야가 전생친구 마하브라흐마에게 말했다.

"그래, 나는 아라한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 온 것도 사실이지. 그런데 마하브라흐마여, 나는 지금까지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 말을 믿는다면 아라한이 계시는 곳을 알려주지."

"마하브라흐마여, 나를 찾아온 친구의 말을 믿고말고. 알려준다면 나는 바로 그분께 달려서라도 갈 거네."

이에 마하브라흐마가 말했다.

"꼬살라국 사왓티에 고타마 붓다가 계신다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아라한이시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라네."

비베깐난다 사문이 차가운 밤공기를 깊이 들이키다가 기침을 했다. 그러더니 짜이로 목을 진정시킨 뒤에야 기침을 멈추었다. 아쇼까는 물론이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데바 모두가 비베깐난다 사문의 입을 주시했다.

"그제야 바히야는 자신의 타락을 깨닫고 고타마 붓다를 친견하기 위해 꼬살라국 사왓티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때 마하브라흐마는 신통력으로서 바히야를 도와 120요자나 되는 거리를 단 하룻밤 만에 갈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바히야 다루찌야는 전생친구 마하브라흐마의 도움으로 아침 일찍 사왓티에 도착했다. 때마침 고타마 붓다는 사왓티 거리로 나와 탁발을 하고 있었다. 바이야 다루찌야는 한눈에 고타마 붓다를 알아보고 뒤를 따랐다. 그러다가 틈을 보아 바히야 다루찌야는 "고타마 붓다시여,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그러나 고타마 붓다는 탁발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바히야 다루찌야는 고타마 붓다에게 더욱 다가가서 애원했다.

"붓다시여, 저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고타마 붓다는 바히야 다루찌야가 120요자나 길을 단숨에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몹시 흥분해 있는 그를 보고는 그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런데도 바히야 다루찌야는 계속해서 끈덕지게 법문을 간청했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는 할 수 없이 선 채로 법문했다.

"바히야여, 네가 어떤 것을 볼 때 보고 있는 그 자체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거라. 네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그 자체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거라. 네가 어떤 냄새를 맡을 때에, 혹은 어떤 음식을 맛볼 때, 무엇을 만질 때, 또 네가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에도 너는 항상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거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마음의 대상일 뿐임을 알아 거기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이나 싫어함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타마 붓다의 짧은 법문을 듣자마자 바히야 다루찌야는 즉시 아라한과를 얻었다. 기적 같은 변화였다. 곧바로 바히야 다루찌야는 고타마 붓다에게 비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타마 붓다는 조건을 달아 허락했다.

"비구가 되고 싶으면 가사와 발우를 비롯한 물품들을 준비해 오거라."

바히야 다루찌야는 바로 물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고타마 붓다 곁을 떠났다. 그러나 바히야 다루찌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던 암소에 밟혀 죽고 말았다. 바히야 다루찌야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바히야 다루찌야에게 전생부터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귀신이 암소로 변신해 있다가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고타마 붓다와 비구들은 탁발을 끝내고 제타와나로 향하다가 바히야 다루찌야가 쓰레기더미 위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타마 붓다는 비구들에게 그를 아라한에 합당하게 화장할 것과 그의 유골을 탑에 안치하라고 말했다. 제타와나로 돌아온 뒤에야 그 이유를 비구들에게 밝혔다. 바히야 다루찌야가 길 위에서 법문을 듣고 즉시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러자 비구들은 어떻게 단 몇 마디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에 고타마 붓다가 말했다.

"아라한과를 얻는 것은 법문을 듣는 횟수와 관계가 없느니라. 아주 짧은 단 한 차례의 법문일지라도 듣는 이에게 참으로 유익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라."

고타마 붓다가 더 이해하기 쉽게 비구들에게 게송을 읊었다.

열반을 이루는 것과 관련 없는
일천 편의 의미 없는 게송을 듣기보다는
단 한 편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게송을 듣는 편이 훨씬 낫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감동한 나머지 몸을 떨었다. 뿐나 존자와 늙은 장사꾼 바히야 다루찌야가 숫빠리까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이 마구 솟구쳤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비베까난다 사문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발원했다.

'숫빠라까 출신인 뿐나 존자를 기리는 뿐나라마를 복원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설법을 듣고 가장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된 바히야 다루찌야도 추모하겠습니다.'

데바 역시 숫빠리까 상인수장처럼 감동이 치밀어 올라 달무리를 쳐다보며 마음을 진정했다. 그러나 아쇼까는 바히야 다루찌야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고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러면서 짜이가 담긴 잔을 코끝까지 들어올렸다. 아쇼까는 짜이에서 나는 재스민 향에 동물처럼 코를 큼큼거렸다. 〈계속〉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❷ 선승 태몽



▶한줄요약
선승의 태몽 중에는 우리나라 민속 태몽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보살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도 있다.

선승 탄생담 얽힌 '태몽' 이야기

태몽은 태어날 아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사연을 짐작하게 하니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어왔다. 그래서 태몽과 관련된 민속이 다양하다. 신화나 전설, 고소설 등은 주인공의 품성과 활약을 암시하려고 태몽을 활용한다.

선승의 태몽 중에는 우리나라 민속 태몽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보살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도 있다. 아기 선승이 전생의 어떤 존재의 환생임을 암시하는 경우가 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는데, 둘로 나눠진다. 먼저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발원으로 선승이 잉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호승(胡僧)이나 범승(梵僧)이 선승의 어머니를 찾아와 아들로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경우다.

선승 태몽은 선승이 앞으로 어떤 특별한 마음을 일으켜 출가하기에 이르는가를 암시해주기 때문에 소중하다. 선승 태몽은 한 분의 선승이 태어나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고 중생제도를 완성한 뒤 열반에 들기까지 부모나 주위 분들의 지극한 정성과 축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불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1. 민속 태몽의 수용

마을 단위로 한 생을 꾸려가던 우리 선조들은 자기 집과 마을에 큰 인물이 나기를 기다렸다. 큰 인물 혹은 영웅이 마을을 빛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큰 인물을 낳게 해줄 '큰 꿈'에 환호한 것은 당연했다. 민속에서 영물로 통하는 용, 호랑이, 말, 이무기 등 동물이나 해와 달, 별, 구슬 등이 등장하는 태몽은 '큰 꿈'이었다. 선승 태몽은 우리 민속에서 마을이 함께 기대했던 그 큰 꿈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원오(圓悟, 1215; 출생년도만 밝힘)국사의 부모는 금색 새가 떨어뜨린 오색찬란한 알을 가슴으로 품는 태몽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마을 사람이 함께 꾸었다. 운봉(雲峯, 1889)선사의 어머니는 꿈속에서 오색찬란한 빛을 보고 기뻐했는데, 아기가 탄생할 무렵 집에서 한 줄기 서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목격하고 감동한다. 진묵(震默, 1562)선사의 고향 불거촌 사람들은 선사가 태어날 때 빛의 위력으로 초목이 3년 동안 시드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선승의 부모뿐 아니라 마을 사람이 함께 태몽을 꾸거나 경험하는 현상에서 선승 태몽과 민속 태몽의 긴밀성을 확인한다.

해, 달, 별, 구슬, 용 등이 태몽소가 되는 선승 태몽은 민속 태몽과 가장 유사한 경우다. 해는 어머니의 배를 비춰서 맑고 강력한 정기를 내려주거나(일연, 보조, 무학, 원각), 어머니 품 안으로 깃든다(학린, 원증, 편양). 달도 방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배를 비추거나(혜초)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온다(송파, 보우). 별도 품 안으로 들어온다(원효, 초의, 영파). 선승의 어머니가 꿈에서 구슬을 머금고 품는 경우는 더 많다.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은 해와 달과 별의 정기를 압축하여 담고 있는 것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어머니는 신령한 사람이나 새, 쥐로부터 구슬을 전달받는다(묘각, 동진, 풍담, 경성, 설봉, 하의, 도선). 구하(九河, 1872) 스님의 어머니는 여의주를 문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용꿈은 '큰 꿈'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다. 원응(圓應, 1051), 의천(義天, 1055)과 용암(龍巖, 1783)의 어머니들은 용이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었다. 그 외 무용(無用, 1651)의 어머니는 누런 무늬를 띤 커다란 짐승이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집을 감싸고 도는 꿈을 꾸었고, 나옹(懶翁, 1320)의 어머니는 황금빛 새 한 마리가 떨어뜨린 알을 품는 꿈을 꾸었다. 벽하(碧霞, 1676)의 어머니는 푸른 새들이 어깨 위로 모여들고 푸른 노을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함월(涵月, 1691)의 어머니는 큰 물고기를 보고 잉태하는 꿈을 꾸었다. 이 모두 민속에서 '큰 꿈'으로 받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속의 '큰 인물'인 영웅과 다를 바 없는 선승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

선승 태몽이 민속이나 서사문학의 태몽에 가장 근접한 사례를 도선(道詵, 827)의 경우가 보여준다. 영암 출신인 도선은 깨달은 뒤 35여 년 동안 광양 옥룡사에 주석하며 수백 명의 제자들을 지

선승의 탄생 암시하는 태몽 다양
민속 태몽 수용, 불보살 뜻 계시
금빛새 떨어뜨린 오색알 품기도
선승 부모와 주민 같은 꿈꾸기도



도선국사 진영.

도한 덕 높은 선승이었다. 그런 그가 음양풍수설을 설파하는 도사인 것처럼 알려지니 선승으로서의 본모습이 가려졌다. 그의 태몽에서도 그런 변화가 확인된다.

〈광양 옥룡사 선각국사 증성혜등 탑비문〉(1150)은 도선의 태몽을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 자료 중의 하나다. "어머니 강씨의 꿈에 어떤 사람이 명주(明珠) 한 개를 건네주면서 삼키게 했다. 이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만삭이 되도록 오신채와 누린내 나는 육류는 일체 먹지 아니하고 오직 독경과 염불로써 불사에 지극하였다. 태어난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달랐다." 이것은 '구슬 받기' 큰 태몽이다. 태몽이 선승으로서의 품성이나 행동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반면 〈동국여지승람〉(1481)부터는 소위 영웅 서사의 '기이한 탄생'에 해당하는 화소가 압도한다. 즉, "마당에 한 자나 되는 오이가 열렸는데 최씨 딸이 그것을 몰래 따먹자 기분이 몹시 상쾌해졌다. 그로 인해 잉태가 되었고 결국 아들을 낳았다. 부모가 인도(人道)를 경유하지 않고 출생한 아이라며 숲속에 버렸다. 며칠 뒤 딸이 가보니 비둘기가 날개로 아기를 덮어주고 있었다. 기특하게 여겨 다시 데려와 길렀다. 마침내 고승이 되었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은 "영암 최씨 집안의 처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상류 쪽에서 오이 하나가 떠내려 왔다. 배가 고팠던 처녀는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들어가 그것을 건져 먹었다."고 적고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내용은 〈영암 도갑사 도선 수미 양대사비문〉(1653)과 〈동사열전〉(1820-1896) 등에서 비슷하게 나온다.

요컨대 〈광양 옥룡사 선각국사 증성혜등 탑비문〉만이 구슬을 삼켜서 잉태하는 태몽을 기록했고 나머지 문헌들은 꿈이 아닌 현실에서 처녀가 우물 속에 떠 있거나 물에 떠내려오는 오이를 먹고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가 버렸고 비둘기들이 보호해주는 걸 보고 다시 데려와 길렀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서사문학 쪽에서 말하는 '비정상적 탄생'에다 '버려지는 아이' 모티프가 이어진 것이다. 영암의 이웃 화순 출신인 진각(眞覺, 1178)국사의 탄생담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참작할 때 도선의 이 탄생담은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전승되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일 듯하다. 이것은 영웅이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고 어려서 버림받는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해지는 영웅담과 다르지 않다. 영웅이란 탁월한 능력을 갖춘 존재로 세속의 욕망을 최고로 충족시키는 데 주역이 된다. 반면 선승은 탁월성에서 영웅과 유사하지만 세속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덜어내고 세속의 해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민속 태몽이나 서사문학의 태몽과 유사한 선승 태몽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조정하려 했을 때, 마야부인의 태몽과 부처님 탄생담을 수용했을 것이다.

2. 마야부인의 태몽과 부처님 탄생담의 수용

도솔천 호명보살은 일체중생을 모두 제도하기 위해서는 사바세계로 가야함을 알고 길을 떠난다. 그는 정반왕과 마야부인을 부모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간다. 그때 마야부인은 코끼리 꿈을 꾼다. 상아를 금으로 단장한 코끼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온다. 그로부터 잉태의 징후가 나타나고 마침내 오른쪽 겨드랑이로 부처님을 출산한다. 이 태몽과 탄생담을 통해서,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스러워하니 내 마땅히 그를 편안하게 하리라"는 아기 부처님의 첫 말씀이 호명보살의 위대한 서원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게 된다.

선승 태몽이 민속 태몽에 뿌리를 둔 것은 선승이 중생세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선승은 중생이어서도 안 되기에 선승 태몽은 부처님 태몽을 지향한다. 진관(眞觀, 912)선사의 태몽을 담은 〈산청 지곡사 진관선사 오공탑비문〉이 이 사정을 알려준다. "어머니 유씨는 칠성(七星)의 상서로운 기운이 입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잉태를 하여 겨드랑이 아래로 선사를 출산했다. 선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으니 귀는 길어서 어깨에 이르고 손을 드리우면 무릎을 지나갔다. 오신채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 화택(火宅, 삼계의 괴로운 곳)에 있었으나 마음은 진롱(塵籠, 중생이 갇혀있는 세계)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여기서 겨드랑이 밑으로 탄생한 것은 부처님 탄생소를 명백하게 수용한 것이다. 귀와 손이 길고 오신채 냄새도 맡지 않았다는 것, 세속 밖으로 마음을 향한 것 등도 부처님의 경우를 연상시킨다. 〈금구 금산사 혜덕왕사 진응탑비문〉은 혜덕(慧德, 1038)이 부처님의 감응(感應)을 입어 탄강했다고 강조한다.

선승 태몽이 부처님 태몽에 다가가는 또 다른 길은, 갓 난 선승으로 하여금 영웅이 겪는 것과는 본질이 다른 역경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보조(普照, 1158)국사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 백약이 무효였다. 위대한 정기를 내려 받아 왕성한 생명력을 보이는 영웅들과는 너무나 다르다. 보조국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출가하여 부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청하 보경사 원진국사 비문〉은 세 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모두 잃는 원진(圓眞, 1171)국사의 처지를 부각시켰고,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 보명탑비문〉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를 잃는 자정국존(慈淨國尊, 1240)의 상태를 강조했다. 이로써 태어난 지 이레 만에 어머니를 잃은 부처님의 처지와 뚜렷이 연결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심각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선승의 경우 어머니의 이른 죽음은 어린 선승의 삶이 세속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출가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런 점은 가족관계, 특히 모자관계가 중시되는 우리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것일 테다. 다음 차례에서 이 점을 고려하면서 선승 태몽의 본질과 의의를 공부해보도록 하겠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❷ 강에 금덩이 던진 형제



▶ 한줄요약
형제들이 싸움할 때 어른들이 이야기한 '길 가던 형제가 주운 금덩이를 물에 던진 옛날이야기'는 사실 〈대지도론〉 비유담인 '형제투금'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국에는 언제 전래된지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열전 등에 민담으로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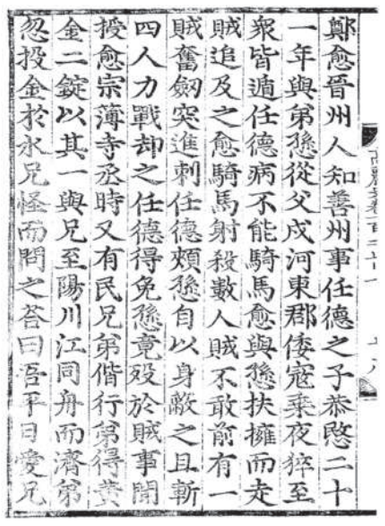
비움·보시 가르침, 韓구전설화로

어린 시절 형제간에 혹은 자매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 혹은 할머니께서는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며 '길 가던 형제가 주운 금덩이를 물에 던진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을 것이다.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한참 늦둥이인 필자는 먹을거리도 새 장난감도 모두 당연히 막내인 나의 것이었다. 나누고 함께 쓰는 것에 미숙했던 나는 금덩이를 강에 던진 형제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금덩이가 너무도 아깝게 여겨졌었다. 형제간의 우애가 핵심인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일까? 우리에게 전래동화 혹은 설화로 익숙한 이 이야기 역시 먼 인도에서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기원한다.

'형제투금'(兄弟投金)으로 불리는 이야기의 가장 이른 기록은 402년 서역북로에 위치한 쿠차국(龜玆國)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대지도론〉(大智度論) 권22에서 찾을 수 있다.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자 제자들이 이를 만류하며 더 많은 깨우침과 지혜를 얻기를 바랬다. 이에 석가께서 재물과 보시에 관한 인연이 얽힌 여러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재물은 번개와 같고 갖가지 번뇌와 죄업의 인연이므로 지혜와 착한 법을 행하여야 열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때문에 재물은 오히려 스스로 버려야 하는 것이므로, 기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하여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림①. 2017년 서울시의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조형물. 형제투금의 이야기를 담아 제작됐다. 한국 민담 중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비유담이다.



鄭愈晉州人知善州事任德之子恭愍二十一年與弟愈從父戍河東郡倭寇乘夜猝至衆皆遁任德病不能騎馬愈與愈扶擁而走賊追及之愈騎馬射殺數人賊不敢前有一賊奮劒突進刺任德類愈自以身敵之且斬四人力戰却之任德得免愈竟歿於賊事聞授愈宗簿寺丞時又有民兄弟偕行弟得貴金二錠以其一與兄至陽川江同舟而濟弟忽投金於水兄怪而問之荅曰吾平日愛兄

그림②. 〈고려사〉 열전 호우조. 형제 투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불교적 가르침 대신 유교적 가족애를 강조했다.

어떤 두 형제가 각각 10근(斤)씩의 금을 지고 길을 가는데, 그 길에는 다른 일행이 없었다. 형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아우를 죽이고 금을 다 빼앗지 않는 것일까. 이 넓은 길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생각했다. 아우 역시 "형을 죽이고 금을 다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제가 서로 나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보는 눈짓이 달랐다. 곧 형과 아우는 스스로 깨닫고서 도리어 뉘우치는 마음을 내며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다.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형제로 태어났으면서 조그마한 금 때문에 악심을 일으키고 있다니"라고 했다.

잠시 후 형제가 깊은 물가에 이르자 형은 금을 물속에다 던져버렸다. 그러자 아우가 "참으로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우도 이내 금을 물속에다 던져버렸다. 형도 "참으로 잘했다"라고 동생을 칭찬했다. 그리고는 형제가 서로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했는지 묻자, 동시에 대답하기를 "나는 이 금 때문에 착하지 않은 마음을 내어 한 사람을 죽이려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버렸기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 두 형제의 말이 같았다. 재물은 악한 마음의 인연이 되니, 언제나 스스로 버려야 한다. 그러니 하물며 보시를 하면 큰 복을 얻게 되거늘 어찌 보시하지 않겠는가?

위의 〈대지도론〉의 '형제투금'은 재물은 악연을 쌓기 쉬우니, 스스로 비우고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투금'은 언제부터 이 땅에 전해져 내려온 것일까? 한국에 까지 전래된 유래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高麗史) 권121 열전 효우(孝友)조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양천현 산천(陽川縣山川) 공암진조(孔巖津條)에 기록된 이야기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공민왕(高麗 恭愍王) 때 당시 어떤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동생이 황금 두 덩이를 주워, 하나를 형에게 주었다. 양천강(陽川江,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공암진 근처)에 이르러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던 중에 동생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물에 던져버렸다. 형이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답하기를, "제가 평소 형님을 깊이 사랑하였는데, 이제 금을 나누고 보니 문득 형을 꺼려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인지라 강에 던져버리고 깨끗이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형도 말하기를, "너의 말이 정말 옳다"라고 하면서 역시 금을 물에 던져버렸다. 그때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은 모두 우매한 백성들인지라 두 사람의 이름과 마을을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 이 강을 투금뢰(投金瀨)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지도론 비유담인 '형제투금'
고려사 등에 민담으로 소개돼
비움 대신 유교적 형제애 강조
中에 전해져 명대 소설로 탄생
가담항설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14세기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재물의 무상함과 보시의 중요성은 묻히고, 당시에 유행한 주자학(朱子學)적 윤리에서 중요하게 여긴 유교의 이념에 맞추어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는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명나라 때 진요문(陳耀文)이 엮은 〈천중기〉(天中記) 권50 금불상물조(金不祥物條)에 "…朝鮮國都中 有兄弟二人…"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있었던 두 형제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다. 이 설화는 인도에서 전래되어 5세기 경 한역된 〈대지도론〉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륙에서 민간에 전파되지 못하다가 오히려 천년 후 조선에서 중국의 명나라로 전해지는 특이한 전승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나라에 전해진 '형제투금'은 소설 '한후룡전'(韓厚龍傳)의 기원이 된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명나라 성화연간 패서땅에 장님 한후룡(韓厚龍)과 앉은뱅이 임허영(林許榮)이 이웃으로 살았다고 한다. 한후룡과 임허영은 길에서 황금을 주웠으나 서로 양보하다가 길에 놓고 갔는데, 한 상인이 도적에게 상품을 빼앗겨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황금을 주워 가라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상인이 가서 보니 황금 대신 큰 뱀이 있어 칼로 죽이고 돌아와, 어른을 속였다며 꾸짖었다. 후룡과 허영이 다시 가 보니, 그 황금이 두 동강이 나 있어 하늘이 주는 것이라 여기고 한 덩어리씩 나누었다.

그들은 황금을 가지고 절에 가서 불상의 금칠을 하는 데에 시주하고, 부처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발원하였다. 그날 밤 자다가 깨어나 보니 장님 한후룡은 눈을 뜨게 되었고, 앉은뱅이 임허영은 다리를 펴고 걷게 되어 산사에 머물면서 병서와 무술을 익혔다고 한다. 어느 날 글을 읽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만나 후룡과 허영의 전생담(前生譚)을 듣고 신선에게 갑주와 보검을 얻었다. 이후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한 한후룡은 좌승상에 임허영은 우승상에 오르게 되고, 부귀로 일세를 누리었다는 이야기이다.

명대 소설의 기원이 된 '형제투금'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기 있는 설화였는지는 전국에서 조금씩 변형된 이야기가 두루 구전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강원도 양양군·강원도 횡성군·충남 부여군·충남 공주군·전남 승주군·경북 대구시 원평도 등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인물이 매우 사실적으로 남아있다.

〈대지도론〉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러 지역의 구전설화들의 공통점은 두 형제와 금덩어리라는 두 가지이다. 이후 전래되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각색됐다. △금을 버린 사람이 형에서 아우로 △금을 길에서 줍지 않고 집에서부터 가지고 길을 떠남 △서로에게 나쁜 마음이 들자 금덩어리가 누런 구렁이로 변함 △형제가 힘을 합쳐 구렁이를 물리침 △죽은 구렁이가 두 덩어리의 금으로 나눠짐 △둘이서 한 덩어리씩 나눔 등이다.

짧게 요약하였지만 부처님의 비유담에서 한국의 전통 설화로 자리잡는데, 천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비유담(譬喩談) 중의 하나로 들어온 '형제투금'은 처음에는 불교에서의 보시와 공덕의 가르침을 위해서 전파됐으나, 이후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이 한국의 전통 설화 '우애 좋은 형제', '구렁이로 보인 금덩이', '지성이와 감천이', '어토양주(魚吐兩珠)' 그리고 중국의 고전소설 '한후룡전'이다.

강서한강공원에 가면 '형제투금'에 등장하는 금덩이를 든 두 형제와 배가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다. 단순히 설화 혹은 동화의 한 장면을 표현한 볼거리가 아닌, 그 기원이 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에 다다르기 위한 비움과 보시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으로서 보시를 닦은 이는 이름이 시방에 가득히 차고 지혜로운 이의 애경(愛敬)을 받으며, 대중에 들어가도 두려워함이 없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나며, 오랜 뒤엔 반드시 열반을 얻는다."
– 〈대지도론〉 권22中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박원자의 母情佛心 25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장애인 포교를 선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불연을 맺었다. 고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만난 불교에서 '평등'을 만났고, 이에 감화돼 스님이 된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이내 스님을 따라 신실한 불자가 된다. 특히 어머니는 공양주를 자처하며 스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님, 제가 공양주 하겠습니다"



그림 · 박구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운영하며 불교의 평등과 자비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해성 스님의 출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따라 다녔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어머니는 딸 스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딸이 출가할 때 어머니도 함께 출가한 셈이다.

초등학생인 어린 딸은 어머니가 절에 갈 때면 따라나섰다. 5리 정도의 길을 타박타박 걸어 나룻배를 타고 내려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정릉의 조그만 절에 가는 길이 즐겁기만 했다. 어머니가 법당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이 절 마당에서 또래들과 뛰어놀았다. 중고등학교 때도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 오며가며 어머니가 일러주셨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려면 부처님이 도와주셔야 해. 시험 보다가도 생각 안 나면 '나무묘법연화경' 을 외우렴."

나중에 출가해서 보니 어머니는 법화종 사찰에 다니셨는데, 불교가 무언지 몰랐어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덕분에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출가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절을 찾기 시작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학력에 대한 차별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다. 학력 차별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실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고통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염불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휴가 때 친구들과 놀러간 절에서 스님들이 한 방에 둘러앉아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회사의 사장은 대면조차 할 수 없고 과장 앞에서도 고개 한번 들지 못하는데, 이곳은 노스님, 어른 스님, 젊은 스님 할 것 없이 빙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충격이었다. 곁에 있던 한 스님에게 어떻게 어른들이랑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절집의 생활은 완전한 평등사상 위에서 이뤄진다는 대답을 해주었다.

그날 들었던 '평등' 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숙이 들어와 출가로 이어졌다. 모든 생명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부처이기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신선했다. 든든했다. 계급화로 이루어진 불평등한 사회에서 고생하지 말고 출가해서 평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멋있게 살아보자고 결심했다.

그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며 절에 다녔어도 어머니는 출가 이야기에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맏딸을 결혼시켜 손주 보기를 원했던 아버지는 눈물까지 비치시면서 반대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의 출가는 인생에 대한 실패라는 흔적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는 세계였다. 그러나 출가해서 평등한 세계에서 살고 싶은 결심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처님과 결혼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는 다니던 절의 스님의 위로에 겨우 마음을 추스렸다. 그리곤 절에 가서 덮고 잘 명주 이불을 만들어주었다. 스님은 이 이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막상 허락을 하고 절로 보냈어도 어머니는 오래도록 딸의 출가를 서러워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니' 라는 말을 여러 번 내비쳤다. 아버지는 자신의 박봉의 공무원 월급 때문에 대학을 보내지 못해 맏딸이 결혼 대신 출가를 선택한 한 것 같아서 몹시 미안해했다.

어머니는 딸이 출가해서 강원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활동으로 불교의 '평등사상' 을 실현하는 동안 딸 스님보다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 경전을 읽고 출가한 자식이 만인을 위한 보살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는 사이 남은 자식들 모두 불교에 귀의했고 남편도 경전을 보며 신심을 키워갔다. 딸 스님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딸 스님과 합류해 출가 아닌 출가생활을 시작한 것은 스님이 장애인들을 위한 법회를 하기 위해 법당을 마련했을 때였다.

"사랑의 전화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에 눈을 떴어요. 수녀들, 젊은 타종교인들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했죠. 수녀가 운영하는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할 때, 중증장애인들을 목욕시키고 밥을 떠먹여주는 수녀들의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보살행에 대해 생각했죠.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시설에 봉사를 하러 가면 '스님도 이런 곳에 오냐' 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불교계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거의 전무할 때였어요. 30여 년 전 청각장애인 교회가 전국에 200여 개 곳이고 우리는 3개였죠. 지금도 그래요. 사실 경전의 내용도 모두 상담과정이잖아요.

> **어머니와 사찰 다니며 불교 인연**
> **고교졸업 후 취직하니 학력 차별**
> **평등한 불교 감명… 출가 결심해**
> **맏딸의 출가에 부모님 극구 반대**
> **이내 부모 · 가족 신실한 불자로**
> **모친 공양주 자처하며 신행 생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를 배우고 공연도 하다가 그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회를 열기 위해 법당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때 어머니가 공양주를 자청하며 들어오셨죠."

어머니는 법당을 청소하고 밥을 지어 신도들과 딸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남은 시간엔 기도만 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제가 수행자로서 약해 보여요. 아버지도 계신데 집으로 돌아가세요."

"스님, 제가 공양주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요. 공양주 월급으로 나갈 돈을 장애인들 후원하시는 데 쓰세요."

어머니는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딸 스님과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다. 절에 필요한 물건들도 만들어냈다. 스님이 수화를 배우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러 다니는 동안 절을 지켰다. 그리고 절에 오는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보살폈다. 그렇게 함께 한 세월이 25년이다. 언젠가는 남동생이 집으로 모셔갔는데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절 생각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것이다.

스님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한 자식 출가에 9족이 승천한다고 했고, 자신의 출가로 인해 온 가족이 불자가 되었으며 동생들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알았다. 죽는 순간까지 자식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열이면 열, 나 좀 빨리 낫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어머니들은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아들딸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아, 우리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런 마음이구나' 싶었죠. 병원에 법당을 만들어 법회를 보면서 만난 어머니들도 똑같으셨어요. 오로지 자식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문안와주기를 바라죠. 그 후로 스님들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라고 권했어요. 자신의 어머니한테 효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부모은중경〉을 강의하겠느냐고 했죠."

오로지 자식에 대한 헌신으로 일생을 사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스님은 어머니에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시를 쓰기 시작했다.

금빛 노을 내려앉은 산자락/ 나부끼던 수풀 가뿐 숨을 삼키고/ 뭉게구름 쉬어가는 고요한 산사/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처마 밑 물고기 바람에 기대어/ 눈물 소리로 나를 부른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라며 잔잔한 미소로/ 어루만져주시던/ 어루만져주시던 어머니 어머니/ 잡은 손 뿌리치고 돌아선/ 이 자식 그리워 가슴 조이며/ 황혼 빛 그늘에서/ 옥 같은 모습 사라진 어머니/ 긴 세월 불효함에/ 가슴 깊이 묻어둔 눈물 감추며/ 풍경소리에 어머니의 사랑담아/ 바람에 실려 보낸다

이 시에 작곡하는 능인 스님이 곡을 붙이고 스님이 노래를 직접 불렀다. 이 곡은 〈어머니의 풍경소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 많은 자식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이 곡 말고도 스님이 가사를 만들고 노래해서 세상에 선보인 곡이 많다. 음반도 여러 개 나왔다. 딸 스님이 주관하는 '수화사랑 음악회' 에 오실 때마다 노래하고 수화하는 스님을 보면서 어머니는 눈물 짓고는 한다.

"너무 고맙고 좋아서요."

이제 어머니는 출가한 딸을 더 이상 애처로워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딸 스님을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97세의 어머니는 다음 생엔 출가자가 되어 딸 스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발원하고 있다. 딸이 출가함과 동시에 자신도 마음으로 출가해 함께 힘껏 수행하고 보살행을 하면서 어려운 장애인들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어머니와 해성 스님이 계신 광림사에서는 법회 때 이렇게 인사한다.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뜻의 염불이다. 이렇게 염불하는 동안 모두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겠다 싶다. 스님이 운영하는 연화원이라는 이름처럼.

〈작가〉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부처님이 승만 부인에게 수기 내리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④ 수기를 내리다

부처님이 대중 가운데서 곧 수기(授記)를 주셨다. "그대는 여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한량없는 아승지겁 동안에 마땅히 천상과 인간에서 자유로운 왕이 될 것이다. 태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항상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내 앞에서 찬탄하기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아승지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2만 아승지겁 동안을 하여 마땅히 보광여래, 응공, 정변지가 될 것이니라. 그 부처님 나라에는 나쁜 과보를 받는 일이 없으며, 늙고, 병들고, 쇠해지는 괴로움이 없다. 또한 좋지 못한 악업의 이름마저 없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몸과 힘과 수명과 다섯 가지 욕락이 모두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즐겁기만 하여 타화자재천의 천상세계보다 나을 것이다. 그 세계의 중생들은 순수하여 대승에서 한결같이 온갖 선근을 닦아 익힌 이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니라."

승만 부인이 수기(授記)를 받았을 때 한량없는 중생들과 천상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세존께서 모두에게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하였다.

부처님이 승만 부인에게 수기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다. 수기(授記)란 범어 'Vyakarana'를 번역한 말로 불법을 수행하는 이에게 부처님이 미래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보장해주는 말, 곧 예언을 해 주는 것을 수기라 한다. 수기의 본래의 뜻은 교리 해설에 대한 분석이나 문답방식으로 전하는 교리해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경전을 구분하여 말할 때 12부경 혹은 9부경이 있는데 수기가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뜻이 변하여 사후에 태어날 곳을 예언하는 말로 쓰이다가 후대에 와서는 미래세에 성불한 뒤 얻을 명호와 국토 이름 등을 밝혀주는 것을 '수기를 준다' 고 하였다. 〈장아함경〉에 포함된 〈사니사경(闍尼沙經)〉이라는 경에는 부처님이 가가라(伽伽羅) 대신이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또 석가모니부처님도 과거세에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하며 미륵 부처님도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승지는 대수(代數)로 쓰이는 용어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화엄경〉에 124개의 대수 용어가 설해져 있다. 겁(劫)이란 말은 가장 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찰나(刹那)와 상대되는 말이다.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으로 아승지겁을 인간과 천상의 왕이 되었다가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2만 아승지겁 동안 하여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내용이다. 고도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로 씨앗 하나가 수많은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그 양(量)이 점점 증가하여 무한대로 이어지듯이 작은 인연에서 시작하여 성불을 기약하는 큰 인연이 오게 되는 미묘한 이치를 설하고 있다.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욕계의 가장 높은 천상세계이다. 타화자재란 남의 것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쾌락을 누린다는 뜻이다. 변화가 자재하여 온갖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리는 천상이라 한다.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승만 부인이 성불할 때 보광여래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 중생들과 천상 사람에게도 왕생을 보장해 주는 수기를 아울러 주었다. 수기를 받으면 장차 부처님 일을 하게 된다.

〈증일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첫째는 '법륜을 굴리는 일' 이다. 법을 설해서 중생을 깨우치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를 제도하는 일' 이다. 부처님은 성불 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법을 설해 어머니를 교화하셨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천도재를 지내며 부모나 조상을 천도한다. 세 번째 일은 '믿음의 땅에 서지 못한 사람을 믿음의 땅 위에 서도록 하는 일' 이라 했다.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넷째는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 이다. 대승불교는 보살 정신을 강조한다. 보살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다섯째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수기를 주는 일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음보살'…보살도 실천과 중생 구호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㉗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위신력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증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은 당연히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문품' 에는 중생의 고난을 구원하려는 관세음보살님의 의지와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경에서 설하기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모두 위험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를 때마다 33응신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중생들의 위난과 두려움을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구원의 보살이기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날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특히 〈법화경〉의 '보문품' 은 관세음보살 신앙의 결정적인 전거(典據)입니다. '보문품'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신행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보문품' 에서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이 '관세음' 이라 이름 하게 된 연유를 물을 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남자여. 만약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 모든 괴로움과 뇌로움을 받을지라도,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한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때에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풀리어 벗어남을 얻게 하느니라. (중략) 나찰 귀신의 나라에 빠져서 떨어지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에 만약 이에 한 사람에 이를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어려움에서 풀리어 벗어남을 얻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써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구세자로서의 위력을 가진 대보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또한 〈화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대비행의 실천자, 즉 구원자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6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80권화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구호하는 신앙의 대상 즉 귀의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80권 화엄경〉에서는 이르기를, 관자재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이미 성취하였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여 끊이지 아니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에 머물렀으므로 모든 여래의 처소에 항상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서 보시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로써 하기도 하고, 이롭게 하는 행으로써 하기도 하고, 같이 일함으로써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며, 육신을 나투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부사의한 빛과 깨끗한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으로써 하기도 하고, 위의로써 하기도 하며, 법을 말하기도 하고, 신통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케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케 하기도 하노라."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관세음보살은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구호하는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④ 번뇌와 정신

'존재'에서 생긴 번뇌

수행승들이여,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들에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증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모든 번뇌의 경〉

생각에 답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더 나은 생각,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생각을 거듭하면서도 지겨움을 느끼지 않는다. 정신 활동을 바르게 쓴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아도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아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다고 알 뿐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생각은 환(幻)이다' 생각이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면 일체를 안 것과 같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는다. 무엇이 연결되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바른 정신에 있지 못한 것이다. 성품은 텅 비어 있다. 이 제로에서는 무엇도 늘어날 수 없다. 좋은 생각, 맞는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 이다.

우리의 몸은 조건에서 태어났다. 누구도 몸의 조건을 선택할 수는 없다. 조건 지어진 의식에 따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한다. 조건은 기억과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다양한 존재의 의식들이 교차하고 있다. 인간의 뇌를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 3가지로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포유류로, 어떤 때는 파충류로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개 짖는 소리가 옳은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옳은가? 옳고 그름이 아닌, 그 생각의 뿌리를 보는 자.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자가 수행자다.

존재의 번뇌란 무엇인가?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 적이 없다. 나는 텅 비어 있다' 는 생각까지 전부 존재에서 생긴 번뇌다. 무명의 번뇌란 무엇인가? 무상, 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함에서 생긴 것이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우리로 있을 뿐인데 그렇게 있지 못하고 유혹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래야 한다.' '나' 를 한정적으로 만들며 규정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기도하고, 바라고, 찾고, 배우며 완전하게 흡족한 '나' 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만든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를 버리면 완전해지는데 이러한 떠남을 우리는 도태나 실패, 포기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어떤 사람' 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스로' 는 규정할 수도 물들 수도 없다. '스스로' 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너무 착하려 말고, 있는 그대로 착해야 하는 것, 없는 조건으로 착하려면 번민스럽고, 찾아 욕들을 일 없지만, 억지로 욕 안 들으려는 것도 근심이네.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에 마음 두지 않으면 대면하는 일 어렵지 않네. 일어나는 그것,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크게 오고,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작게 오네. 모든 것 한 생각 일어나게 하려는 허깨비 같은 안개. 만들어 놓은 조건으로 크다, 작다 해본들 지금 그 사대오온 무엇을 더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대의 지혜는 그 사량분별을 뛰어넘어 있는데, 사량 분별하는 그 자를 아직도 '나' 라고 하니 어찌 뛰어넘는 지혜를 얻겠는가. 지혜는 그 뛰어넘어버리는 그것이 지혜이니, 뛰어넘고 나면 다시 지혜를 찾지 않네. 본래 그러한 것으로 와서, 본래 그러한 것을 보라고 하는데, 본래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려 하니, 본래 그러한 것 보고 듣는 데도 알 수 없다네. 본래 그러한 것 보기만 하면, 본래 모든 것 알고 보는 자이네. 왔다는 것 어디에 있는가? 갔다는 것 어디에 있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수행을 위한 종단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3호 | 17 | 전면광고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부처님 말씀 읽기 -《열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卍佛寺 프로그램

❖삼재 방생풀이 음력 입춘 - 삼진날까지 비바람 불면 연기, 매일 11시 비구니스님 성지 봉사 개회
❖쥐·용·원숭이 1인 5만원, 양초 3천원, 이름 써드림, 공양미 1kg 2천원
❖서울 전철 아산신창행 - 도고시내버스 - 신통리
❖농협 351-0881-7941-93 조계종 만불교
❖아산시 신통길 192-21 (지장보살 모신 절)

접수문자 010-3410-0004
041-544-4441

무소유의 행복!

선착순 5명, 기도비 월 30만원

신비한 약수!
소나무밭! 맑은공기 산책로!
기도하며 조용히 살고싶은
보살님들을 매월 초대합니다.

문산 전철역 : 택시 10분거리
파주읍 향양리 산39번지
031-953-9509, 010-4069-5315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 • •
010-4435-5660

• •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청주 상당구 봉은사
• • •
010-5883-2255

• • •
같이 수행할
부전스님 모십니다.
(보수는 상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 • •
010-7574-1515

❊❊❊
단청,탱화,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특 수 비 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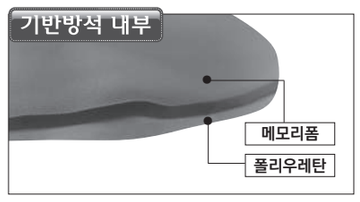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3호 | 18 | 전면광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신심명》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 건물 : 2층, 목조 법당
- 대지 : 540평
-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학원 및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지 : 약 256평
- 우동 자이아파트 단지 옆 자명요양병원 앞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 도로에서 25미터
- 대지 100평 3홉 건평 40평정도
- 스님유고 관계로 양도합니다.
- 답사 하실분만 전화 요망
- 가액 : 2억 9천(절충)

010-9796-08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
- 대지 : 약 2,100평
- 전망이 아주 좋음
- 가액 : 5억

010-3173-5151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450만원, 월세25만원

010-9181-9666

사 찰 안 내

-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1동 제일여고 뒷편 삼복도로
- 임야1800평, 대지60평, 전답 120평, 법당20평, 삼존불, 용왕당, 요사체, 방4개
- 양도가 5억, 협의가능

010-8762-987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7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종교용지 218평/건평1층42평 ● 2층26평/단청 토기와 컨테이너6평 산신각,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 심야전기, 천연지하석수, 1일150톤 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건강상실가이하로 ● 7억8천에 양도합

010-6425-8274
010-9319-3009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 2백만, 월세 15만 권리금 3백만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사찰(급) 안 내

- 부산 영도구 용석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 대지89평, 기자재포함, 서재1, 방1, 산신각1, 용궁1, 해수관음상1
- 가액 5억1천만원 사정상 급하게 양도(절충가능)
- 네이버 검색시 사찰사진 있음

010-2350-8202
010-3653-5883

요양원·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길 312-52 백련사 사찰부근
- 물좋고 산세 좋음
- 대지 600평, 토목공사 완료 전기, 수도 공사 완료
- 가액 : 6억 복지법인 둥지마을 포함

010-6538-722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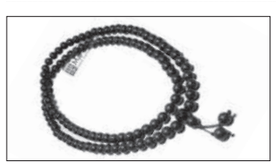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② 폴리페놀

차의 가장 좋은 성분 '폴리페놀'

차가 우리 몸에 좋은 많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tea를 즐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이롭고 명상과 요가에 어울리는 다양한 차들을 찾고 있다. 단연 동양에서 시작된 녹차에서 보이차까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차의 어떤 성분이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걸까? 그것은 폴리페놀이다.

티폴리페놀(tea poiyphenol)은 티타늄(tea tannin)이라고 불리며 차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다. 차나무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은 플라바놀(flavanols) 플라본(flavones) 플라보놀(flavanols), 안토시아닌(anthocyanins), 류코안토시아닌(leucoanthocyanins), 페놀산(phenolic acid), 뎁시드(depside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페놀산과 뎁시드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2-페닐벤조피란(phenylbenzopyran)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플라보노이드(flavonoids)로 통칭한다. 티폴리페놀은 차가 가지고 있는 쓰고 떫은 맛과 페놀산의 상쾌한 맛을 구현하는 물질이다. 티홀리페놀 중에 카테킨의 함량이 가장 높고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페놀산 등은 건물질 중량의 5%를 넘기지 않는다.



새 가지와 생장 왕성한 잎에 많아
항산화작용·항암·항염·항균 등

폴리페놀은 차나무에서도 특히 새로 뻗어 나오는 가지와 생장이 왕성한 잎 부분에 많이 들어 있으며 노쇠한 잎과 줄기 뿌리에는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리형 카테킨 정도만 들어 있다. 그러나 차나무의 새 가지에서도 발육 정도에 따라 카테킨의 함량 및 구성물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폴리페놀 폴리데아닌 폴리루기닌의 변화가 나무의 발육이 진행됨에 따라 함량이 낮아지는 데 반해 폴리데아닌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중국 운남의 대엽종찻잎은 중소엽종의 차나무보다 카테킨 함량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에스테르형 카테킨 함량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봄 찻잎의 새순과 줄기를 따서 녹차를 만든다. 차줄기와 찻잎의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유기(free radical)를 제거하며 항암 항염 항방사능 향균 소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잠깐 자유기를 설명하자면 활성산소라고하며 동식물의 체내세포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화합물로 노화나 동맥경화암 등의 발병 원인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 자유래디칼에 우리의 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간다. 수시로 따뜻하게 마시는 차 한 잔은 보이지 않는 몸속의 수많은 병의 유발 성분을 체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은 시대적인 환경의 오염도가 심각하다. 물과 공기 바람 토양 그 어떤 곳에서도 온전히 건강을 보호 받기 어렵다. 늘 가까이에 두고 마시는 자연의 선물이 바로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 있는 차류이다. 중소엽종을 원료로 사용하는 차보다 더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폴리페놀에 있는 수많은 페놀성 수산기는 매우 강한 환원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된 후 세포 내 활성산소와 산화환원반응을 일으키며 자유기를 제거해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

차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은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킨다. 또한 데아닌은 불안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우울증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인체의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뇌 중추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도파민의 생리 활성과 사람의 감정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은 도파민의 신경 자극 기능이 강화되어 심신이 안정되고 대뇌가 외부 반응에 자극하는 역할이 강화되어 기억력이 향상된다.

폴리페놀의 성분의 향균 효과는 위장염이나 A형 간염, 감기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말라이아균, 살모넬라균, 황산포도상구균, 디프테리아균, 탄저균, 변형간균, 녹농균 등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다. 그리고 폴리페놀은 유산균, 비피더스균 등 유익한 미생물에는 항균 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체내 미생물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무좀균에도 특효가 있다. 또 차에 함유된 사포닌(saponin)은 피부병을 일으키는 진균류 및 대장간균을 억제한다.

스티븐R. 건드리(의학박사)의 저서 〈플랜트 패러독스〉에 의하면 "늘 우리가 즐겨먹는 식단에서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화합물질이 폴리페놀이라고 이야기한다. 식물생리 활성물질인 폴리페놀은 곤충을 격퇴하고 햇빛에 화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 화합물을 만들며 우리의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대사될 때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있다.

동물 단백질 카르티닌과 콜린으로부터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TMAO(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trmethylamine N-oxide)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능이 있다. 보충제 형태의 폴리페놀에는 포도 씨 추출물 소나무껍질 추출물 적포도주 폴리페놀이 있다. 녹차추출물 베르베린 코코아 계피 오디 석류속에도 들어 있다. 그중에 단연 간편하면서도 많은 양의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녹차 청차 황차 흑차 보이차를 마시는 일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② 소금으로 부자 되는 법

'건강 부자'로 인도한 미네랄 소금

코로나로 인해 삶이 피폐하고 인간관계 또한 혼돈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건강하게 살기도 점점 힘든 세상이다. 간단하게 부자 되는 법은 없을까?

소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소금을 소와 금으로 나누어 팔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흔하디흔한 소금을 비싼 소와 황금으로 나눌 수 있다니….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금을 소와 금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누는 방법이 정녕 없을까? 아니, 있다.

삼라만상의 물질은 나누어지고 나누어져 원소 혹은 미네랄로 구분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100여 가지의 원소 혹은 미네랄로 불리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어 우리가 접하는 원소, 즉 미네랄은 80여 가지로 파악이 된다.

소금은 화학기호 NaCl(염화나트륨)로 표기한다. 나트륨(Na+) 미네랄과 염소(Cl-) 미네랄이 결합한 모습이다.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이 존재한다. 이들 각각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네랄 블럭에 모인 소들

바다생물, 미네랄로 생명탄생·유지
바다의 미네랄, 대자연이 준 큰 선물

칼슘은 뼈를 만들고, 나트륨은 피를 만든다, 마그네슘은 신경전달물질이고 300여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여한다. 리튬은 치매 예방 의약품 등에 사용된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 요오드는 갑상선질환을 예방해준다. 칼륨은 칼륨 나트륨 펌프를 통해 자극의 전달을 책임을 진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들 각각의 미네랄을 미네랄 소금에서 분리해 판매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의 가격은 매우 높다.

리튬 같은 미네랄을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미네랄로 가격이 매년 몇 배씩 뛰어오르고 있다.

바닷물 속에 사는 해조류, 어류 등은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로 생명을 만들고 삶을 부족함 없이 끌어간다. 우리 인간 역시 이 미네랄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다면 건강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들 미네랄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분야에 돈을 쓴다. 그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건강이다. 나이 들면 이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나이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나이 든 사람만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다. 소아 당뇨병 환자 같은 예전에는 없던 질환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데 쓰는 비용만 줄여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병원에 갈 일이 없다면 그것처럼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처럼 큰 축복이 또 있을까? 돈 많은 부자는 못 되어도 건강 부자는 될 수 있다.

가축을 길러 본 사람은 안다. 가축도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연간 대한민국에서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7만 톤이 넘는다.

그것도 모자라 축사에는 미네랄 블록이라는 이름의 소금 덩어리를 놓아두어서 먹인다.

가축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애완동물 사료에는 수십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 있다. 개 사료, 고양이 사료를 눈여겨보면 얼마나 많은 미네랄이 들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을 위한 미네랄은 가축이나 애완동물보다 소홀한 경우가 많다. 미네랄을 알뜰하게 챙겨 먹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동물들은 매일 매일 소금과 미네랄을 챙겨 먹는데 인간은 미네랄에 도통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

뼈에 구멍이 뚫리고 부서지고 나서야 "골다공증에는 칼슘이 필수적인데"라고 하면서 뒤늦게 관심을 보이고 심혈관질환에 걸리고 나서야 "마그네슘을 먹어야 하는데" 하면서 챙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망가진 몸에 뒤늦게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다.

미리미리 미네랄 섭취를 통해 건강을 잃은 뒤에 발생하는 이런 비용을 줄이고 건강을 노년까지 유지한다면 돈이 많은 부자 부럽지 않은 건강 부자가 될 수 있다.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 있는 소금이라면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바다의 미네랄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주었다.

자연 그대로의 것,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연의 신비, 바다의 비밀을 그대로 살린 소금을 찾아 먹는다면 미네랄 섭취라는 건강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노년의 건강 유지 비결은 젊었을 때부터 미네랄 섭취에 달려 있다. 건강한 노년의 삶으로 가는 길, 건강부자의 길은 질 좋은 미네랄 소금이 인도한다.

〈(주)오씨아드 이사〉

국내최초·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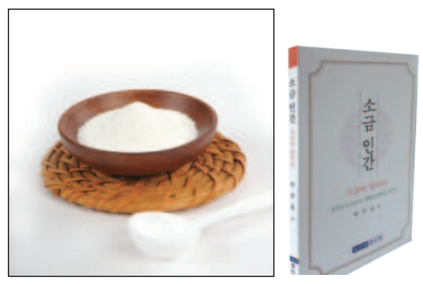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 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❶ 연재를 시작하며



▶**김병전 대표**는 김병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는 간화선을 비롯해 다양한 명상과학 프로그램을 두루 섭렵한 명상전문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명상의 참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쉽게 설명한다. 명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 가보자. 마음챙김 명상앱 '하루명상'의 개발자인 그는 현재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로 있으며, 하트스마일명상연구회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딜로이트컨설팅, 머서컨설팅, 앤더스컨설팅 등에서 근무했다.

'마음챙김' 계발하면 '자기돌봄' 향상돼



현재에 '주의' 두려면…호흡에 집중
순간 힘든감정 들어설 자리 잃게돼
심신 서서히이완, 마음여유 생겨나
일련 과정 거치면 스트레스서 해방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삶의 양식을 바꾸었다. 식사, 쇼핑, 여행, 결혼식, 운동, 취미생활 등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과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역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멘탈헬스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뉴 노멀 시대의 핵심 중 하나는 안전과 건강인데, 최근 OECD 연구에 따르면, OECD 주요 15개국에서 우울감과 불안 수준은 각각 코로나 19 이전 대비 6.8%에서 21.8%로, 그리고 8.4%에서 28.0%로 평균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우울 수준은 36.8%로 비교 대상 15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불안 수준은 29.5%로 멕시코(50.0%), 영국(39.0%), 미국(30.8%) 다음으로 높은 4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전 세계 직장 성인의 약 절반 이상이 직업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었고, 업무 일상 및 조직의 변화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재택근무 장기화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의 증가, 일과 개인 생활을 분리하기 어렵게 되면서 또 따른 형태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물리적인 위협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 등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불안함, 두려움, 또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례없는 상황에 당황하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겪게 되는 고통의 상황에 건강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팬데믹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일과 삶에서의 성찰과 치유를 통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균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마음챙김(mindfulness)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19에 대해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한국에 진출한 한 외국계 기업에서 줌을 통한 마음챙김 명상 교육 요청이 있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글로벌 본사의 지시로 실행되었다. 프로그램 명칭은 셀프케어 위크(Self-Care Week)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주일 중에서 하루(1 Day)를 완전히 쉬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을 돌보도록 하였다. 1일 휴가는 셀프케어 위크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주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휴가로, 임직원들의 사용을 독려하였다.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요가, 명상, 마음챙김 실습, 멘탈 강화 프로그램,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각 국가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마인드풀 셀프케어' 온라인 세션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국 지사의 담당자와 구성원들은 마음챙김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여행도 자제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워진 with코로나 일상,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어떠신가요? 답답함과 무기력감, 불안감이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면, 이제 밖으로 향한 주의를 나 자신에게 돌려와 자기를 돌볼 때입니다. 현재 경험을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mindfulness)은 지친 나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후략)"

이상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지사 임직원들에게 보낸 안내 문구의 일부이다. 당시 2개의 세션을 오픈했고, 2개 세션 모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는 필자의 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명상앱 '하루명상' 12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필자가 놀랐던 것은 글로벌 본사인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마음챙김이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구성원들의 멘탈헬스 관리를 위해 마음챙김, 명상, 요가 등은 이미 일상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마음챙김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팬데믹 시대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지사 담당자는 '마음챙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필자의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형 마음챙김 프로그램과 '하루명상' 앱 서비스를 보고 연락이 왔었다.

미국 기업이었던 이 회사가 마음챙김 솔루션을 적극 활용한 배경에는 마음챙김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0여 년간 마음챙김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이 명상의 효과를 검증해왔다. SCI급 이상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2020년에만 약 2,200 여 편에 이른다. 심리학 분야의 논문 편수가 3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정신건강의학 · 신경과학 · 교육 ·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마음챙김의 효과를 살펴보면 화와 분노 조절,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혈압 조절 등 개인 정신과 신체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집중력 증가, 경청 태도 개선, 목표 추구, 리더십 개발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역량개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개인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마음챙김을 경영활동에 적극 도입한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보다 명상의 전통이 훨씬 오래되었고 명상을 깊이 있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주로 과학의 영역보다는 종교의 영역에서 소화된 측면이 강했다. 이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오랜 명상 전통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과학적 명상프로그램은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된 마음챙김 또는 컴패션 기반의 프로그램들이다.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인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 자기연민 프로그램인 MSC(Mindful-Self Compassion), 스탠퍼드 자비명상 프로그램인 CCT(Compassion Cultivation Training) 등이 대표적이다.

마음챙김을 계발하면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능력 즉 '자기 돌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자기 돌봄'이란 쉽게 말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피곤할 때 쉬고,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일들이 생각만큼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 원치 않는 일이나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일어나는 피곤함,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불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삶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때가 많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불쾌한 신체 감각이나 힘든 감정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주의가 자동으로 집중되면서 더한 괴로움을 낳게 마련이다. 이럴 때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일단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되돌려 현재 경험을 판단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이 필요하다. 현재에 주의를 두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현재 순간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주의를 '호흡'에 두면, 먼저 그 순간 힘든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윽고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면서 불쾌한 신체 감각, 생각,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를 돌보는 가장 적절한 대응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마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고 명료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접근법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예측 불가한 삶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손해 등이 만연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심리학자들은 불안과 우울, 두려움 같은 괴로움이나 불편감을 회피하는 것은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심리장애의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해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마음챙김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알아차림은 주어진 상황과 함께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몸의 아픔과 괴로움, 회복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나 걱정, 자신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나와 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팬데믹 시대 마음챙김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하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법구경〉 주법품 제258편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처럼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이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들숨과 날숨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라.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몸을 가만히 바라보라." 마치 태어나 처음 숨을 쉬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한 호흡이라도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보라.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일일시호일

골육종에 무너진 청년의 꿈…
"다시 웃을 수 있길"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탄 골육종에 왼쪽다리 절단
병원비만 1000만원 이상…의족 있으면 걸을 수 있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두가 한마음 촛불 하나에 다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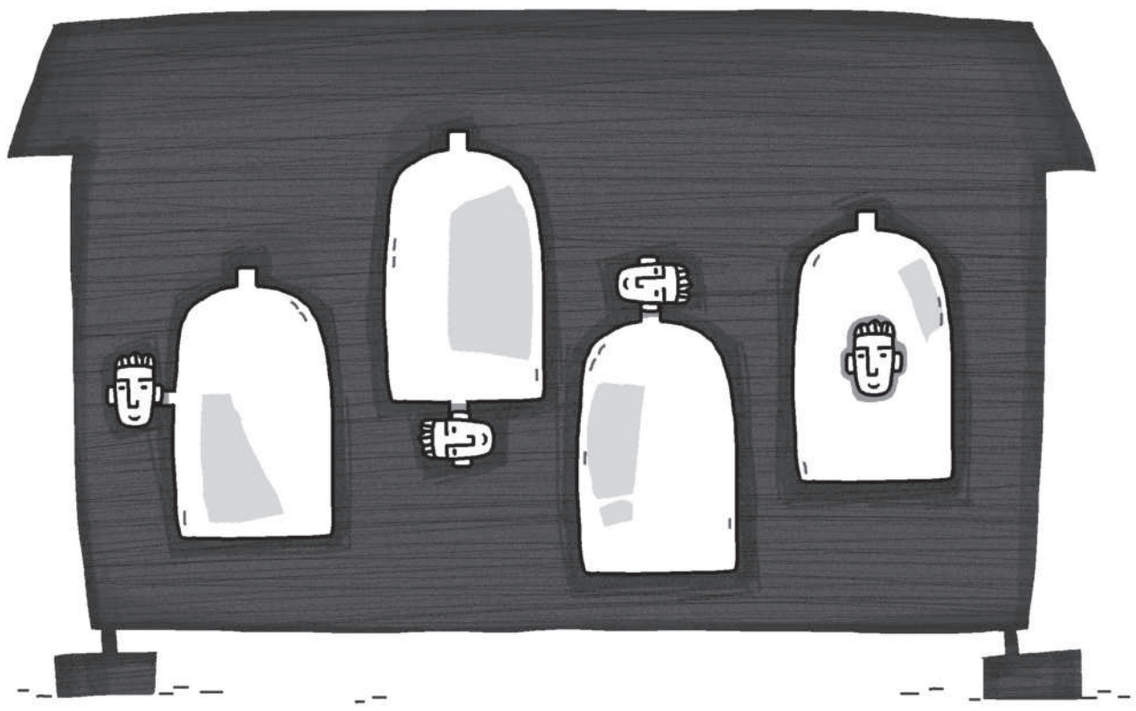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음력으로 친다면 오늘이 벌써 여드레인 거 같습니다. 물론 이 선종 도리에는 올해가 따로 없고 내년 해가 따로 없고 작년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을 한데 합쳐서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 지금 아마 정월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시계추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 우리 인생도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군요.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되돌이켜 한번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선법 도리에 의해서 우리가 관문을 통과한다 하는 것은, 그 관문이라는 자체도 예전에 성현들이 바로 관법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방편이라고 하지만 그 방편을 우리가 안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중이 귀한 선종 스님한테 묻기를 "부처는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바로 네가 부처니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말끝에 그 중이 하는 말이 "보림을 어떻게 하오리까?"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종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그것을 관찰하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이것을 잘 관찰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수차적으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말은 달라도 뜻은 같으니까요. (잠시 사이) 그런데 부처가 너라고 하니까 "보림을 어떻게 하리까?" 하는 묻는 말과 더불어 말대답이 "네가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느리라." 하신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참나를 알았다면 거기에서 다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장자를 보지 않고 내 주장자에 맞춰서 산다면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자를 여러분과 같이하면서 '나는 옛날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었고 후일에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작년에 죽은 게 없어서 올해도 죽을 게 없고 내년에도 죽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 근본 자리에서 그 회답은, 어떠한 말을 했든지 그 뜻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색신이 살고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투로 말을 안 하고 달리, 뜻은 똑같지만 달리 이렇게 말을 자꾸 해서 여러분이 그 뜻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여러분이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보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놔서 참말 보림을 잘했으면 거기서 싹이 틔어 나올 테니까 보림을 하게 만드느라고 그랬을 거고, 나중에 깨쳐 가지고도 또 잘 나투면서,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려서 보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법도 있고 그러하니 말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어떤 점에 속할까요?

그럼 그건 눌러 두고요, 요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이것이 물에 빠져 본 놈이 물에 빠져 본 놈 사정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봤다고 했을 때에 그때가 공부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오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말고 내 참 여기에 안으로 굴려서 내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습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생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주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쳤다 할지라도 항상 상대방을, 내가 굴려서 보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다 다시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좀 본다고 하더라도 본단 말을 바깥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접때도 그랬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똥을 누고 가더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는 밥을 먹더라. 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는 잠을 자고 있더라." 이렇게, 참나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뜻으로 그렇게 보게 했더니 요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해. 그러니까 그거를 말없이 쓰되, 말없이 굴리되 그 굴린 자리에 다시 놔라 이거야. 알면 자기가 알았지 남이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도 아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때가 애들 사춘기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때가!

그래서 그런 걸 급한 일이 있으면 쓰되, 그 썼단 말도 하지 말라 이거야. 또 그걸 보되, 듣되 그것은 도반들끼리나 서로 주고받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도반들끼리 앉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해도 좋습니다. "글쎄, 네놈이 말이야, 이거를 봤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 아, 고놈도 고놈이더군." 하면서 참 재미있게 문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바로 선신이 되라고 했더니 귀신이 되는 거라!

기껏 배기무가 되라고 묻어 뒀더니 아, 이건 공다리씨 그대로 있는 거라. 아무짝에도 못 쓰지. 심어 봤자야 무도 밑에 안 앉고 공다리만 올라오니깐 뭐, 이파리를 먹을 수가 있나, 씨를 쓸 수가 있나? 그와 같이 아무짝에 못 쓰는 거라. 그러고도 나만 본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지난번에 주장자를 갖다가 받아서 이렇게 법상에 놓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짝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 짝이 나는 거라. 그리고 나라는 아만만 서고 아상만 서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당당하고 도도하되 내 모든 행으로는 겸손하고 언제나, 위를 보면 위 보는 대로 아래를 보면 아래를 보는 대로 항상 엽렵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남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가짐가짐이를 잘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말 한 번, 행 한 번 잘못하고 돌아가면 연쇄적으로 잘못되는 게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역대의 조사들한테도 미칠 뿐 아니라 저 끄트머리로 가서는 석존까지 일컬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저 불자들이 하는 일이 저게 뭐야? 저 행동 좀 봐!" 그런다면…. 불자라고 했습니다. 불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석존이 따로, 그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자 나고 내가 여러분이거든요. 동시에 욕을 먹는 겁니다, 동시에! 누구를 막론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월 1일, 2일, 3일, 촛불재를 하는데, 그 촛불은 왜 켜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본래 아는 거라면 아마 전자에 선조들이 그렇게 방편을,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여러 말씀 안 하고도 될 수 있었지마는,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걸 모르시니까 모든 것이, 염불도 있어야 했고 촛불재도 있어야 했고, 그 옛 법을 다 갖추어야 했고, 지금 현 법도 예전 법도 둘이 아니게 항상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이 예의로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 해야 합니다. 모르고 남이 하니깐 그냥 따라 해서는 아니 되죠.

보통 우리는 마음을 밝힌다고 합니다.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밝아져 있지 않다면 촛불 자체를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전체의 근본 자체가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이라. 그 근본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수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 조그마

☞ 22면으로 계속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이 세상을 한숨에 꿰어 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되라

☞ 21면에서 계속

한 내 마음의 촛불, 티끌만도 못한,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묘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묘한지, 슬프다고 눈물이 나고 즐겁다고 웃고, 또 사랑한다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찰나찰나 천차만별로 행을 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지금 연결 연결 해서 옮겨 가고 있는데, 옮겨 돌고 있는 거죠? 옮겨서 돌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자기의 그 밝은 마음에 의해서 옮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이 동시에 삼합으로서 한데 합쳐지면서 옮겨 가고 있는 겁니다. 옮겨서 돌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품이 이러냐 저러냐. 변덕스러우냐 조용하냐, 나쁘냐 좋으냐 하는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팔자 운명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차원에 따라서, 차원이 일차원이냐 이차원이냐 삼차원이냐 하는 것도 자기 성품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라. 모른다 하는 것도 성품이요, 안다 하는 것도 성품이라. 성품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손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고,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고,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 맡을 수가 없고,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듯이, 몸이 없으면 몽땅 다 없듯이 그것이 다, 움죽거리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작용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조성하고, 성품은 작용을 조성하는 것이란 얘깁니다.

왜 내가 인간의 이 혹성, 이 자체의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지수화풍으로 완벽하게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나도 공했고 이 허공도 다 공했어! 그랬는데 생명이 없는 송장이 어떻게 가고 오고 움죽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허공이 어떻게 움죽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이렇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조차도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품이, 어떠한 걸로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성품 자체, 마음 자체를 그냥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람" 이러는 거나 똑같죠. 그러나 성품은 그렇질 않습니다. 성품은 지혜가 넓은 성품이 있고, 지혜가 낮은 성품이 있고 성품도 천차만별로 돼 있으니까요.

성품이 천차만별로 돼 있어서 자기 성품으로 인해서 자기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이 자기라는 것도 몽땅 공했다는 것을 알고 봤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땅 다 아주 보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색색 가지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뭐가 되죠? 접때 말했죠? 열매가 맺는다고요. 눈 감으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그 어지러운 것이 다 떨어져.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 살림살이하는 데 지금 근본 목적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일체를 남의 탓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주 감아 버려!

"나 하나만 죽으면" 하는 소리는 내가 살아서 죽을 줄 알아야지, 죽어서 송장이 돼 가지고 죽는다는 건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위 열반이 있고 무위 열반이 있어. 그런데 무위 열반이 될 수 있어야 유위 열반으로 돌아올 줄 알지, 무위 열반을 모르면 유위 열반을 몰라, 진짜! 그래서 무위 열반과 유위 열반이 둘이 아니어야 진짜 열반인 거라.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때렸는데도 탓을 하지 말랍니까?" 이럽니다. 그렇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지,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어?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녹음 안됨) 이 주인공 그 성품에서 나온 거, 공한 성품에서 나온 거 공한 성품에다 놔라 이거야. 네가 한 거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 자기가 시자 노릇을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시자가 된다면 죽는 것이라. 자기 몸뚱이는 아예 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예 눈 감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역력하고 참, 외착이 없이 소소영영하게 우리 살림살이를 똑바로 여실히 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여실히, 똑똑히, 역력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가?

참자기로서 바로 그 성품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요렇게 시계추가 돌아가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 시계를 세 시라고 고정되게 해 놓을 수가 있나, 두 시라고 해 놓을 수가 있나, 한 시라고 해 놓을 수가 있나. 어떤 시간을 제일이라고 할까요?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할 때를 오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것은 오후입니다. 이 지금 오전 오후를 단계라고 볼 때에, 우리가 오전에 잘하면 오후는 걱정할 것도 없죠. 미래를 왜 걱정해요?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이 또 진화돼서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온 것들 때문에 지금 오전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전에 모두 몽땅 놓지 않는다면 오후에도 여전히 무겁게 짊어지고 아마 끊임없이 돌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촛불이지만 언제나, 촛불을 켜든지 생활을 하든지, 만남이 있든지 사랑을 하든지, 생활을 하는 데에 회사에 나가든지, 모든 것을 하는 거나 먹는 거나 자는 거나 깨는 거나 또 만남이나 모든 것을 자기한테로 돌릴 때 그때에 진짜,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한 보림이에요. 또 만나고 난 뒤에 잘 보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이 우주 전 세계를, 아니 우주 전 세계,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닿기만 하면 몽탕몽탕 타 버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촛불 하나가 뭐를 태우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내 조그마한 마음 하나가 자석이라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그 자석에 붙어서 녹아 버린다고요. 붙기만 하면 녹아! 그게 한 덩어리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어긋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이 마음을, 예전 선종들의 그 관법을, 또는 깨친 그 도리를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면 도대체 말하고 행하고 뜻이 전부 어긋나 버려. 내가 이거를 한다 했어도 그놈의 게 안 돼 버려. 다른 데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한다고 했다가도 또 달리 돌아가.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이러니까 말과 행과 뜻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 마음을 밝히면 말과 행과 뜻이 똑같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구법이니 청법이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고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잘했지만, 그 방편, 그 활구를 우리는 몰라서도 아니되지마는 나를 깨쳐 가지고는 그러한 책을 봐도 책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책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깨치지 않고 책을 보면 책이 나를 보고 내가 책을 보기 때문에 그 글씨 쓴 백지를 아는 도리가 없어. 글을 보고 해석을 하고 야단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백지를 모르면 바로 내 백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 그분들이 하시고 내려오신 그 문제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 내가 한다고 그래서 나만이 내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분이 동시에 하납니다. 하난데 너무 수효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을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이건 무(無)라! 그렇듯이 우리 생활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룻날 저녁에 예불을 모시고 저녁때에 촛불재를 하고, 촛불재를 하면 그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킨다는 거를 아주 실감 나게 실천에 옮기면서, 내 모두를 불태우면서 나까지도 거기 더불어 같이 태우는 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 촛불 자체는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바로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력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을 모르고 화두를 들고 10년 20년 돈다거나, 10년 20년 좌선을 하고 앉았다가 해제가 되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제 해제는 없는 것입니다. 선방에 가는 분들이라면 해제가 없고 결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도리를 알아서 어느 날짜를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율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은 거지, 지금 선 도리를, 선을 하는 사람은 일일이 따지는 그것을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질서는 지키되 바로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 일체를 놓고 들어가야 되거든.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서는 것만이 선이 아니야. 눕는 것만도 선이 아니야. 눕고 앉고 서고 하는 것이 다 참선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먹고 행하고 사랑하고, 어느 거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다 참선이라.

이거를 누가 하는가. 한군데서 나와서 한군데로 들고, 한군데서 나와서 한군데로 들고, 쳇바퀴 돌듯 만법의 이치가 이러한데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약에 앉아서만 참선을 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이건 죽은 참선이야. 우리가 생동력 있고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고 이렇게, 정말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한숨에 꿰어 들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공부를 하시려면 모든 걸, 줄창 말씀드렸듯이 사대가 공한 자기, 이 세상이 공한, 그 둘이 아닌 나와 더불어 세상은 공했어. '나,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들이고 내는데 그 들이고 내는 놈이 바로 공한 내 주인공이로구나.' 하고 믿고 물러서지 말고 거기에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내가 스스로 갈 때는 스스로 잘 가지고, 올바르게 스스로 행해지고, 올바르게 생각해지고, 올바르게 눈이 떠지고, 올바르게 듣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가난하다면 가정이며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풍족하면 죽을 먹고도 허허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쓸 때에 여여하게 내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짊어지고 다닙니까, 무겁게? 공항에 가면 짐을 놓으면 슬슬슬 돌아가서 내가 내 거는 집어서 들고 나오게끔 되는 그러한 것처럼 배고플 때는 각설이가 밥 먹듯이 내가 먹고 싶을 때는 꺼내 먹고, 안 쓸 때는 거기 놓고, 또 쓸 때는 꺼내 쓰고 이러면 됐지, 왜 짊어지고 다녀요? 모두가, 이 세상천지 모두가 다 내 것이라면 말입니다.

세상천지가 모두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게 없고, 내 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구태여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살 수 없고 속상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잔잔한 물이 돌고 도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화창한 날씨에 만방에 꽃이 핀 거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촛불재를 하더라도 그 촛불 하나가 우주 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를 태울 수도 있다는 이런 관념 아래서 고정되게 착을 두지 않으면서…,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했다면 얼른 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또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생각을 했어도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뒷발자취가 없듯이, 앞으로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으니까, 떼 놓지 않았으니까 또 발자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여기 앉아 있는 이 순간, 바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두가 한마음 촛불 하나에 다 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6년 2월 6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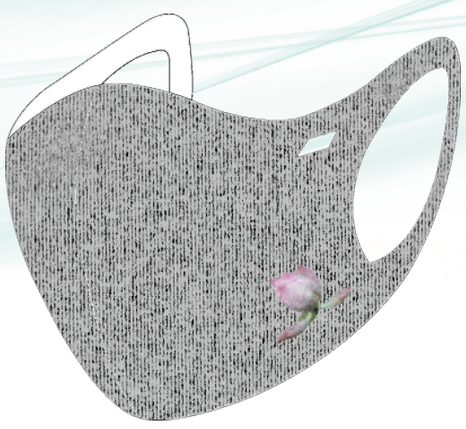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구태여 내가
가난하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잔잔한 물이 돌고 도는 것과 같아요.
화창한 날씨에 만방에 꽃이 핀 것 같고요.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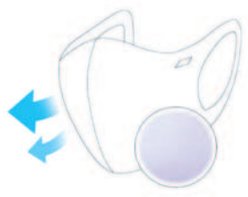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 현불 논단 |

정부, '종교편향 정치' 반성하라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그림 · 박구원

佛-政대립, 정치권 갈등 · 분열조장 원인
매 정권 반복된 종교 편향 참아온 건 불교
政 · 與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사과' 말고
韓불교에 대한 역사적 채무부터 성찰하라

국가와 승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생겼다. 국가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정부 여당이다. 정부는 행정책임을, 집권여당은 입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다수당이므로 정부와 여당은 국정의 실질적 주체다. 국정의 책임 주체와 전통종교의 대표인 불교계가 맞부딪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정과 균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위임했던 주권을 회수할 수 있다. 국민주권의 강력한 힘은 선거권이다. 투표를 통해 새로운 주체에게 주권을 위임하면 된다. 승가는 불교의 수행자 집단이지만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며 국민을 이루는 여러 주체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명백하다. 승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며 주권자인 동시에 유권자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종교편향 행태며 불교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폄훼가 지속되어도 국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고 양보해 온 세월이 수십 년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불교계는 정치에 의한 '차별 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 공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든 기회는 교세의 쇠락으로 이어지면서 공공 영향력도 미미해진다.

승가가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여 오염시킨다고 비난한다. 이런 세력은 불교계 내부에도 있고 이웃종교에도 있으며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들에게 불교와 승가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대해야 하는 국가의 주체가 아니라 배제와 무시의 대상이기 쉽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현 정권의 사례만 손꼽아도 부지기수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 방치,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가치에 대한 보상 외면, 종교의 중립을 위반하는 캐럴 캠페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가톨릭 편향, 경기도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 순례길 추진, 국 · 공립합창단 특정 종교 찬양 일색 공연,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는 여당 국회의원의 불교폄훼 발언 등….

전국승려대회는 그래서 열렸다. 결사나 야단법석 같은 전통적인 불교 어법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조계사에 모여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천명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위험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승가의 단합된 의지는 결연했다. 동안거 기간인 데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긴장감이 더욱 감돌았다. 스님들은 안거라는 승가 내부의 전통보다 종교편향이라는 국가의 불공정한 태도에 대한 대응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승만 정권 이래 역대 정권들의 종교편향 움직임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불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탐욕으로 종교의 순수성을 오염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다른 누군가에겐 '봉이 김선달 통행세'가 된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도 비난하는 자의 눈에는 '걷기쇼'로 보인다. 승려대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면 일부 진영주의자들은 승려대회를 '정치 쇼'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다. 본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게 프레임이다. 정부나 정치권의 프레임주의자들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다.

결론은 세 방향이다. 사과하거나, 봉합하거나, 내부분열 유도를 통한 특정인물에 대한 타깃 공격이다. 라스트신 예측은 싱겁다. 성난 불심을 달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지 않은가. 정부 여당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선거를 앞둔 급한 불끄기라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교감하지 못한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편향 정책이 버젓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인재들이 공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포진하지 못한 점, 종교와 정치의 분리 관습에 따른 소극적 대응, 종교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재창출하는 불교계 내부의 방법론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는 동안 이웃종교는 우리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교육과 의료로 국가 콘텐츠의 주요 부분을 선점하고 인재를 길러 공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포진시켰다. 정치권력과 교단의 정치화가 선교를 통해 우리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 힘의 눈덩이가 관습적으로 계속 굴러가는 형국이다. 포교와 전교에 치열하지 않으면 불교는 조만간 선방의 앉은자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오늘의 승가는 역사적 승가다. 이들은 부처님의 정신생명을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의 집적체이며, 1700년간 주인공의 자리에서 우리문화의 꽃을 피워 왔다.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 당시 입만 앞세우는 관료들이나 도망친 정치의 수장 대신 국가를 구하는 데 일조한 주체는 우리의 스님들이었다. 승가가 국가를 살렸다. 오늘날은 국가가 승가를 살리려 않는다.

한국의 승가는 조선왕조 5백년간 억압 받아온 고난의 역사주체기도 하다.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를 키우지 못한 비원과 통한이 역사적으로 내재돼 있어도 정부나 이웃종교를 탓하는 대신 내부의 결사를 통해 자성하고 쇄신하고자 했다.

내부개혁도 쉽지만은 않은데 외부의 도전 환경이 엄혹해지면 어찌해야 하는가. 전국승려대회는 역사적 승가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편향된 종교정책이 지속되면 인프라가 무너지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편향과 불공정은 저항을 불러온다. 승가의 저항은 고난의 역사주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기갱생 운동이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동시에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왜 아니겠는가.

공존공영의 가치를 훼손하는 종교편향 정치는 반성하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사과를 할 게 아니라 한국불교에 대한 역사적 채무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무를 직시하라. 성찰과 직시를 소홀히 하는 정치는 유권자에게서 멀어진다.

정부 여당은 어찌할 것인가. 공정과 균형의 법도를 지켜 정치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본지환처(本地還處)는 모두의 마음자리에 있다.

社 說

전국승려대회에 부쳐

정권마다 이뤄진 종교편향에 내린 준엄한 경책
차별금지법 제정 · 종교 감수성 확산 등 힘써야

전국 5000여 스님들이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 운집했다. 동안거라는 수행기간에도 불구하고 봉암사 수좌 스님들을 비롯해 전국의 수좌 스님들이 서울로 상경했고, 전국 각지 스님들이 서울 조계사로 모였다. 이렇게 모인 5000여 스님은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경책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불교 외호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자행돼 온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 폄훼에 대한 스님들의 준엄한 경책이었다.

실제,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행사에서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의 결집은 차별적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임을 분명히 했다.

혹자는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날의 승려대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힐난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불교가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었어야 하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불교계는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통행세를 받는 산적' '봉이 김선달'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든 원인은 모두 국가에 있다. 박정희 정권은 불교계와 아무 상의없이 사찰과 소유 토지를 모두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의 비방에도 불교계는 공익을 위해 묵빈대처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과를 요구한 불교계에 "댓글을 보니 정청래가 맞다고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응수했다. 현재까지도 그가 행한 모든 사과가 어떠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청래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던 와중임에도 정부는 개신교와 가톨릭과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 정부가 자랑해 마지 않는 K-방역의 선봉에는 국민과 불교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다. 개신교계에서 집단감염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확진자 '0'을 기록하며 청정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조롱이었다. 모든 정황이 쌓여왔던 종교편향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수처럼 터져 나온 계기가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불교계에 사과의 제스쳐를 제시했다. 승려대회 당일에도 황희 문화체육부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대회장에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 발언의 기저에는 "종교편향의 의도가 없었다"와 "잘 몰랐다"가 전제되며, 이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재한다. '한없이 낮은 종교 감수성'과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다.

그래서 불교계는 승려대회 이후 두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고삐를 조여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뿐만 아니라 사회에 내재된 편향도 바로잡고 대사회적인 종교 감수성 확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다종교사회다. 종교평화는 곧 사회 안정과 평화와 직결됨을 알아야 한다. 불교의 승려대회는 이를 위한 첫 걸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전통불교전문 강원 학인 모집

본사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의 각행원만과 종지종풍을 확립하고
도제양성을 위해 강원학인(신입, 편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 치문반 : 00명, 태고종, 타종단 승적 보유자
▶ 사집반 : 00명, 본사 강원 치문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는 불가)
▶ 사교반 : 00명, 본사 강원 사집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 불가)
※ 사집, 사교반은 본종 승적 보유자에 한함.
※ 학과 내용 : 강원 정규교과 外 서예, 특강,
불공습의, 제반의례의식
※ 특전 : ① 장학금 매년 100만원 지급
② 대교반 졸업 후 선원 입방 자격 부여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부(본사비치, 입방시 작성가능)
② 승적원부 사본 1부
(타종단 동일, 본종 46기 수계자는 수계증 사본)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④ 건강 진단서 1부
⑤ 사진 4매
⑥ 입방비 50만원 (강원 교재비 포함)
※ 입방 일자 :
2021년 12월 31일~2022년 3월 1일 까지
(입방일로 부터 습의과정 3개월 필요함)
☎ 연락처
본사 종무소 : 061) 754-5247 / 5953
강 원 : 061) 754-5954
010-3789-5247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

종단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 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2년 3월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코로나19확산 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불교문학박사 법우스님,
철학박사 혜월(안유숙) 전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농협 351-0422-9291-33 예금주: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선암사 선원 안거 자격 부여
▶ 졸업 시 선지도자 자격증 수여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 (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2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전화 061-754-5247, 5953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강원장 시 각 |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061-754-5247, 5953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福

새해에도 BTN 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 성우스님 시집 '마음' 발췌 -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olleh 233번 Btv 305번 U+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